

丹波元簡이 醫籍 訓詁學에 기여한 成果 考察

— 《素問識》를 중심으로 —

李慶雨 · 丁彰炫

慶熙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Abstract>

A study on the achievement by Danpawongan(丹波元簡) in the Hoongo(訓詁) for medical books(—Focused on 《Soomoonji(素問識)》—)

1. The ancestors of Mr. Danpa (丹波氏) are descended from a royal family of the Han dynasty in China. Danpawongan(丹波元簡, 1755-1810) born in a family of medicine based on Confucianism(儒學) read widely such old books as the Chinese Classical Canon(經), history(史), all philosophers and scholars(子), and anthologies(集), studied Sohak(小學) and consequently prepared himself for solid fundamental knowledge of Hoongo(訓詁 - exegesis)

2. The scholastic mantle of Wongan(元簡) shows the evidence that he adopted the studies of Yangshin(楊慎), Bangiji(方以智), Goyeammu(顧炎武) in the Myung(明) era and his son, Wonkyon(元堅) was influenced by Chung's Hoongohakga(清代訓詁學家—scholiast) such as Daejin(戴震), Danokjae(段玉裁), Wonwon(阮元) and Wanginji(王引之) who are the representative scholars in Chung(清), which served as a momentum for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stream of Gozeonghak(考證學—the bibliographical study of Chinese classics) during the Myung(明) and the Chung(清) eras.

3. His method of study was pursuing balanced academic success in a position of Julchungpa(折衷派—compromising school) by accepting positive Gobangpa(古方派) as well as Hoosepa(後世派) who followed popular Li(李) & Zhu(朱) medicine at that time.

4. We might say that he practiced the spirit of 'Reviewing the old and learning the new(溫故知新)' by establishing his theories subjectively while he was devoted to 'Reactionism(復古)' which explains the teachings of 《Naekyung(內經)》 and 《Sanghanlon(傷寒論)》 which are medical canons.

5. He was also, so to speak, a positivist of medicine who are based on reality because he, under the influence of Bakhak(朴學) of the Chung(清) dynasty, rejected corrupt practices of Doctrinairism—Gognrijuei(空理主義) and pursued Realistic school—Silsagusi(實事求是) which regarded practice as of great importance rather than theory.

He made effort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pplying their related medical theories and prescriptions about the theories or the symptoms in 《Naekyung(內經)》 to clinics by introducing them in his whole volume of 《Soomoonji(素問識)》, and especially tried to show each

obvious meaning of 《Naekyung(內經)》 and Joongkyong(仲景) by referring and comparing them.

6. The methodologies of Hoongohak(訓詁學) that he used are as follows.

- 1) Above all, as preparation for Hoongo(訓詁), he gathered massive data including 《Go - gum - do - seo - jip - sung(古今圖書集成)》 for the bibliographical study(考證) as well as read extensively the Chinese Classical Canon(經), history(史), all philosophers and scholars(子), and anthologies(集)
- 2) He founded his own school by discarding the wrongs for the rights among the many theories, which was possible because of the combination of his medical theories that he perceived himself, his medical experiences from the clinical practices and his knowledge of Hoongohak(訓詁學).
- 3) He clarified difficult phrases from 《Naekyung(內經)》 by applying Tonggaja(通假字).
- 4) He made thorough researches because there are clear foundations in words. His specific ways of researches are ①Yi - kung - hae - kyung(以經解經) :the explan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phrases by using the original text, 《Naekeong(內經)》② the combination of medical theories(醫理) and Hoongo(訓詁) ③collecting circumstantial evidences from such well-known books of the same period as 《Naekyung(內經)》

He quoted more than two examples to make them reliable to the readers when he collected circumstantial evidences .

Wongan obtained many good results while faithful to exegetic methodology.

7. The core of his Hoongohak(訓詁學)'s results is employing Tonggaja(通假字), and he explained using Tonggaja(通假字) in many parts of his book , 《Somoonji(素問識)》.

I selected several examples among them and verified if they are consistent with Sungnew(聲紐) and Woonbu(韻部), the criteria of Goeum(古音). As a result, I found out that tongga(通假)are all in accord with the principles of vocal sounds Sungeum(聲音).

The fact that he found out many examples of Gotongyong(古通用) which were not found in the former notes reveals that he also had the ability in hunting out data for circumstantial evidences used as the same examples as the ones in kyongmoon(經文—sentence of 《Naekyung(內經)》).

This means that we cannot use the Tonggaja(通假字) as we choose at random just because they are the same sound—Dongeum(同音) or similar sound(類似音) and we should always refer to old examples when we use Tonggaja(通假字).

Key Words : 丹波元簡, 《素問識》, 訓詁學, 通假字,

1. 序論

清 錢大昕은 “文字가 있고 난 이후에 訓詁가 있게 되었고, 訓詁가 있고 난 이후에 義理가 있게 되었다. 訓詁라는 것은 義理가 그로부

터 나오는 것이니, 義理가 訓詁의 밖을 벗어나는 것은 별도로 있지 않다”¹⁾고 했다. 이는 곧

1) “有文字而後有詁訓, 有詁訓而後有義理, 詁訓者義理之所由出, 非別有義理出乎詁訓之外者也.”
— 阮元, 《經籍纂詁》 錢大昕序文, 中華書局, 1981, p1

訓詁는 古代典籍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知識이요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다.

訓詁는 經史·諸子百家之書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醫學典籍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知識이다. 訓詁學的 理論과 方法을 써서 醫學古籍을 연구한다면, 古醫書를 이해하는 데에 정확함과 편리함을 제공해 줄 것이다. 醫經을 연구함에 있어 訓詁는 醫理와 더불어 반드시 넘어야 할 課題의 하나이기도 하다.

醫學에 있어서의 訓詁는 그 발달 과정을 《內經》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漢代 張仲景의 《傷寒論》을 기점으로 하여 齊·梁시대 全元起의 《素問訓解》本을 거쳐 隋代 楊上善의 《太素》, 唐代 王冰의 《次注素問》, 宋代 林億 등의 《新校正》 등의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中國 宋·元·明 시대의 學風은 義理學이 우세하였음에 비하여 清代에 와서는 學風의 특색이 考證學의 발달로 변천되었다. 中國에 있어서 考證學의 발달은 日本의 學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江戶시대 幕府 醫學館을 이끌어 나가면서 文獻 訓詁學的 연구에 몰두하여 큰 성과를 남긴 丹波元簡·元堅 父子의 著作은 매우 풍부하여 《內經》, 《傷寒論》, 《脈學》, 《難經》 등에 걸쳐 굵직한 注釋書를 내놓기에 이른다²⁾. 이들은 醫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는 했으나 섭렵하는 지식은 매우 넓었다. 이들의 저작은 醫籍 訓詁學에 대한 研究 發展에 鼓舞劑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必讀之書³⁾

가 되고 있다.

錢超塵은 丹波元簡의 《素問識》에 대해 평하기를 “내용이 깊이 있고 실속이 있어서, 헛되이 넘치거나 가지치는 繁多한 말이 없고 말을 함에 반드시 根據가 있었으니, 자못 清代의 儒學인 乾隆·嘉慶時代 朴學 學風의 精微한 요점을 얻었다.”⁴⁾고 하면서 높은 評價를 하고 있다. 그의 《素問識》은 이전의 注를 匯集하여 정밀하게 條目을 나누어 옳고 그름을 가려냈으며, 明·清諸家들에 비해 보다 정밀한 解釋을 가하고 있다.⁵⁾ 《內經·素問》에 대한 註釋을 集大成 했다는 점에서 《內經·素問》 研究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丹波元簡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研究는 아직 國內에는 없다. 日本의 矢數道明이 《近世漢方醫學史》에서 丹波 父子의 家系 및 著作과 그들의 訓詁學的 成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⁶⁾, 1997년 北京에서 거행된 國際內經學術研討會에서 발표된 論文 <素問識의 引用文의 檢討>에서는 《素問識》의 引用文의 誤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⁷⁾ 中國에서는 錢超塵이 《內經語言研究》, 《中醫古籍訓詁研究》와 《黃帝內經研究大成》을 통해 丹波父子의 訓詁學的 성취가 중국학자들에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그

註考據之學派, 其所著述, 至今仍爲中日治醫經者所必讀” — 錢超塵, 《中醫古籍訓詁研究》, 後記, 貴州人民出版社, 1984

2) 丹波元簡의 주요 著作으로는 《素問識》, 《靈樞識》, 《傷寒論輯義》, 《金匱要略輯義》, 《脈學輯要》, 《脈學匯粹》, 《醫階》, 《素問解題》, 《救急選方》 등이 있고, 그의 두 아들 중 元胤의 작으로 《難經疏證》, 《體雅》, 《疾雅》, 《約雅》, 《名醫公案》과 元堅의 작으로 《素問紹識》, 《靈樞紹識》, 《傷寒論述義》, 《金匱玉函要略述義》, 《藥治通義》이 있다.

3) “多紀父子, 以訓詁之學爲工具, 以中醫古籍爲研究對象, 潛心研考, 乘時崛起, 終開日本醫界, 訓

4) “內容沈潛札實, 無浮泛枝梧之詞, 言必有據, 頗得清儒乾嘉朴學學風之精要.” — 錢超塵, 上揭書, p231

5) “各篇擷取精要, 並摘先輩註釋, 分條詳述, 頗見明暢, 而鉤取經旨深義. 較明清諸家, 尤爲精備也” —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 全 13 卷 中(一),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8

6) 矢數道明, 《近世漢方醫學史》, 名著出版, 1982, 附錄, 第一節 考證學派의 頂點에 서있는 桂山多紀元簡의 偉業”, “第四節 江戶醫學館의 巨擘인 蔭庭 多紀元堅”

7) 日本內經醫學會, 荒川, 鍼灸師, 《首屆國際暨第五屆中國內經學術研討會論文集》, 1997, 北京, p242

의 家系와 著作에 대해 소개하고, 丹波의 著作 內容 중 訓詁學的으로 뛰어난 점에 대한 몇 가지 事例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⁸⁾

本 論文에서는 丹波元簡이 이룩한 訓詁學的 成果를 살펴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 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日本에 醫籍 訓詁學이 전파되어 發展·定着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2. 丹波元簡의 家系와 그의 著作 및 學問의 性向을 살펴보고,
3. 元簡이 이룩한 著作 중 그의 代表作이라고도 할 수 있는 《素問識》를 중심으로 그의 訓古學的 成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素問識》의 訓詁學的 成果를 살핌에 있어서는 그가 구사한 訓詁學的 方法論을 고찰해 보고, 아울러 그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사용되었는지 그 具體的인 成果를 檢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먼저 그의 學問의 淵源으로서 唐宋에 이은 元·明·淸의 訓詁學的 受容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나) 글자를 풀이하는 데에 어떠한 工具書들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訓詁에 사용된 工具書와 거기에 引用 典據로 쓰여진 방대한 文獻典籍들을 추적해보고, 그가 引用한 用例와 傍證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糾明해 보고자 한다.
- 다) 訓詁學에 있어서의 聲音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通假字 分析의 基礎 資料로 삼고자 한다.
- 라) 元簡이 訓詁學에 있어서 聲音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通假字의 原理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運用하여 難解한 글자와 語句를 풀어나가는지를 살펴보고, 그 方法論이 과연 옳은 것인지 分析 考察해 보고자 한다.

이에 著者は 丹波元簡의 《素問識》를 통해 나타나는 訓詁學的 方法論 및 成果를 고찰해 봄으로써 醫籍訓詁學的 理論을 整理해 보는 작은 試圖로 삼고자 하며, 醫學古籍 研究가 나아가야 할 한 方向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I. 本 論

1. 日本 醫籍 訓詁學的 성립과정⁹⁾

西紀 561-562년에 걸쳐 중국 南部 태생의 醫師였던 知聰¹⁰⁾은 醫學理論과 鍼術, 그리고

9) 이 章의 內容은 아래 책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Pierre Huard, Ming Wong 著, 許程譯, 《東洋醫學史》, (CHINESE MEDICINE),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6

大塚恭男(오쓰카야스오) 原著, 《日本の 東洋醫學》, 小花 출판사, 이광준역, 한림대학교 한림원 일본학연구소 한림신서일본학총서53, 2000, TOYOIGAKU by Yasuo Otsuka Originally published in Japanese, by Iwanami Shoten, Publishers, Tokyo, in 1996

矢數道明 原著, 襄元植監修, 《漢方治療百話》, 제4집, 제2권, 論說篇, <日本에 있어서의 東洋醫學의 전개>, 東南出版社, 2000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上·中·下, 北京出版社, 1994

李錦浚, 《日本漢醫學 變遷史에 관한 研究》, 慶熙大博士論文, 1982

潘桂娟 樊正倫 編著, 《日本漢方醫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10) Pierre Huard, Ming Wong 著, 許程譯, 《東洋醫學史》에서는 '知聰'으로 되어있으나, 李錦浚, 《日本漢醫學 變遷史에 관한 研究》, 慶熙大博士論文, 1982, P6에 의거 '知聰'으로 고

8) 錢超應, 《中醫古籍訓詁研究》, '第七節 日本 江戸時期的 醫籍訓詁', 貴州人民出版社, 1984, P227~P234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上, 北京出版社, 1994, p161~164

灸術에 관한 164卷의 서적을 日本에 전했다. 이어서 中國과 韓國의 승려들이 佛敎와 醫療를 전수해 주었으며, 日本은 고유한 土着的인 의료를 바탕으로 이들을 수용 발전시켜 나갔다.

室町(무로마찌) 시대의 中期에 田代三喜(1465-1537)가 明에 留學(1498년)하여 李·朱醫學을 전하고, 曲直瀬道三이 三喜의 門下에서 배워 京都로 돌아가 李·朱醫學을 倡導하자 金元醫學은 현저하게 日本化되어 一世를 풍미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中期까지만 해도 和劑局方이 日本 전국을 지배하고 단조로운 宋醫方의 모방에 그치고 있었는데, 三喜가 李東垣 朱丹溪의 溫補醫類를 日本 國內에 전함으로써 종래의 局方醫學은 일소되어 버렸다. 이 때 처음으로 日本에서도 醫學의 流派가 일어나 隨證治療의 發端이 되었고, 이어서 實證의 醫學이 대두되는 도화선이 되었다¹¹⁾. 이 學派는 결국 宋代와 元代에 유명했던 中國의 劉完素(守眞1120-1200)와 朱丹溪(1281-1358)의 醫學理論을 日本에 보급시키게 되었다.

李·朱學派의 지도자로 철저한 儒學者였던 曲直瀬道三(1507-1594)은 田代三喜에게 李·朱醫學을 배우고, 京都로 돌아가 學舍 《啓迪院》을 창립하였다. 그는 醫療業으로부터 僧侶들을 추방하여 世俗의인 醫家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中國醫學을 日本化하고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오던 宗教醫學 즉 佛敎醫學을 개혁하여 宗教와 醫學이 분리되었다.¹²⁾ 永田德本(1512-1630)은 傷寒論에 입각해서 實證의으로 처방을 썼으니, 그는 李朱學派의 이론에 반대했다.

李·朱學派 외에 張子和로부터 영향을 받은 學派가 있었는데, 이것은 饜庭東庵(1674년 사

망)에 의해 도입되었다. 李·朱學派를 後世派라고 부르는 데에 반해 이들을 後世別派라고 불렀다.

이에 반하는 古醫方 또는 古醫道學派는 名古屋玄醫(1696사망)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中國에서 생긴 당시의 漢學派의 움직임을 본받아 原典으로 되돌아가려는 운동을 醫學 분야에서도 일으켰다.¹³⁾ 江戸시대(1616-1867)로 들면서 後藤良山, 山脇東洋, 宋原一閑齋, 吉益東洞 등 古方派가 앞뒤로 일어서면서 《傷寒論》의 古方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외쳐 主流는 古方으로 기울었다.

日本에 전해진 中國醫學은 後世派(新方)로서 曲直瀬道三이 이를 日本化했으며, 傷寒論의 古方은 吉益東洞에 의해서 日本的으로 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에서의 日本漢醫學의 系譜는 시대적 변천에서 따라 後世派, 古方派, 折衷派, 漢蘭折衷派의 四派로 크게 나눈다.

이를 좀 더 부연한다면, 古方派로는 眞古派와 擬古派로 나누어지는데, 擬古派라고 하는 것은 處方의 古今은 선택하지 않고 다만 그 趣旨만을 古方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이 系譜에 속하는 인물로는 名古屋玄醫, 後藤良山, 山脇東洋, 永富獨癩庵, 龜井南溟 등이다. 한편 眞古派는 진실로 傷寒論의 古方, 古醫道를 활용하면서 전혀 後人의 意를 가미치 않은 것으로 吉益東洞, 吉益南涯, 岑少翁(미네소오), 村井椿壽, 尾台榕堂 등이 그 系譜에 속한다. 眞古派는 後世派가 醫經 중 첫째로 꼽히는 《內經》을 僞作이라 하면서, 《內經》은 疾病의 道에 도움이 없다고 단정한 것과 그들이 주장한 陰陽五行, 臟腑經絡, 五運六氣, 引經報使등의 여러 설도 모두 空理空論이라 하여 부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中國醫學에 대한 革命的인 주장이며 日本醫學의 獨立宣言과 같은 것이다.

한편 幕府醫學館의 丹波家 一門은 考證學派의 입장에서 文獻을 考證하여 古方·後世方의

처 적었다.

11) 矢數道明 原著, 裴元植 總監修, 《漢方治療百話》, 第4輯, 第2篇, 論說篇, <日本에 있어서의 東洋醫學의 전개>, 2000, p352

12) 上掲書, 第4輯 第二, 論說篇, <日本에 있어서의 東洋醫學의 전개>, 東南出版社, 2000, p341

13) 上掲書, p76

長短을 절충했으므로 折衷派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이 계열에는 丹波元簡, 丹波元堅, 目黑道琢, 伊澤蘭軒, 澀江抽齋, 森枳園, 山田業廣, 清川玄道, 今村了庵 등이 있고, 丹波家와는 별도로 折衷派라고 불린 사람 중에는 和田東郭, 中神琴溪, 淺田宗伯, 福井楓亭 등이 있다.¹⁴⁾ 江戸 中期부터 丹波 家門은 幕府 醫學館을 만들어 考證學派로서 古方과 後世方의 折衷을 주장하였다. 丹波元孝는 考證學派의 元祖가 되어 子孫 7代에 미치고 日本醫學系의 추축이 된다.

淸朝의 文獻 訓詁學이 日本에 전해진 뒤 淸에 못지않은 成果와 발전을 이룩하여, 이것이 다시 淸으로 逆輸入되기에 이른다. 淸朝의 訓詁學은 經學을 중심으로 하여 醫學영역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감이 있다. 醫學에 관한 訓詁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專門 醫學家가 아니라, 科擧之學과 經學研究의 일부로서 醫籍 訓詁에 임했던 것이다. 반면 日本에서는 醫籍영역에 있어서의 專門인 醫籍 訓詁學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日本에서는 淸代에 못지않은 많은 訓詁學의 著述들이 쏟아져 나왔고, 中國과는 다른 규모로 醫籍 訓詁學의 全盛期를 맞이하게 된다.¹⁵⁾ 中國이 播種하여 開花한 日本의 考證醫學이 明治 후기에 접어들면서는 逆으로 中國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中醫 文獻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즉 日本의 文獻學은 東醫 文獻資料의 연구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考證學은 淸代에 일어나 一世를 풍미했던 學問 혹은 研究方法이라 말하고 있다. 淸代의 이러한 文獻 考證學의 학풍은 바로 實事求是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客觀인 事實을 근거로 하여 文獻資料를 폭넓게 채집하고 정밀하

게 校勘하여 그 真相眞理를 탐구하고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들은 明代에 유행했던 儒學에 일침을 가했으니, 明代 儒學이 자기의 主觀의 생각에 따라 經書를 해석함으로 해서 客觀인 論據를 돌아보지 않는 空疎學風에 빠진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의 研究對象은 멀게는 經史, 文字, 音韻, 制度, 地理, 曆算, 金石, 書志 등 그 외의 기타 領域에 까지 미쳤으며, 古典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校勘輯佚 등의 작업이 일어났다. 다만 淸朝의 考據學이 醫學領域에 미친 것이 얕은 반면 日本에서의 醫學領域의 考據學派의 研究는 번창했으니, 무수한 考據學 저술들이 쏟아져 나왔고 中國에서도 보지 못한 醫學考據學의 全盛期를 맞이하게 된다.¹⁶⁾

日本에서의 知識階層에 속하는 多數의 醫家들은 대부분 幕府의 醫官이거나 地方藩醫의 신분이었으며, 이들 醫家들은 기본적으로 世襲하여 그 名聲과 權威를 인정받아 지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井上金峨(1732-1784), 吉田篁墩(1745-1798), 狩谷棧齋(1775-1835)로부터 발전 확립된 日本 考據學은 직접 師承되거나 혹은 山本北山(1752-1812), 太田錦城 등의 儒學者들의 仲介가 있었고, 丹波元簡·元胤·元堅, 伊澤蘭軒·柏軒·軒軒, 小島寶素·春沂, 澀江抽齋, 喜多村直寬, 森立之·約之, 山田業廣 등 江戸 醫學館을 중심으로 한 醫家들에 의해 계승되어졌다.

그들은 幕府의 권력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하나의 유리한 조건이라면 文獻資料를 수집하거나, 이들 자료를 열람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利點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또한 元簡이 訓詁學을 위한 基礎資料를 확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考據學 方面에 있어서의 日本 醫學家들은 中國과 확실히 달랐다. 그들은 醫學에만 한정하지 않고 經史이외의 漢籍 및 國學 등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섭렵해 들어감으

14) 矢數道明(야카즈 도오메이)原著, 裴元植總監修, 《漢方治療百話》, 第四輯, 東南出版社, 2000, p345~346

15)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 上 - 北京出版社 1994 p787

16)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一 - 上, 北京出版社, 1994, p787

로 해서, 그 함양한 수준이 넓었으니, 그 예로 幕府末期 漢籍書誌學의 정화로써 만들어진 《經籍訪古志》를 보아도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楊守敬이 明治前期 1881년에 訪日했을 때 일본 醫學文獻學의 연구 성과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하고 놀랐다고 한다. 그는 일본에 와서 4년간 日本의 漢方醫書를 모아 가져갔다. 그리하여 丹波家の 名著인 《律修堂叢書》도 중국에서 출판되었다¹⁷⁾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고, 廖平 또한 丹波元簡의 저술에 傾倒되었던 것이다. 中國이 播種하여 開花한 日本의 考證醫學이 明治 後期에 접어들면서는 逆으로 中國에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날 中醫 文獻學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확실히 中醫學의 文獻資料 方面에 있어서 日本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크다 하겠다¹⁸⁾.

2. 丹波元簡의 家系와 그의 著作 및 學問 性向

丹波元簡의 家系 및 著作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한 研究 結果가 나와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既存의 內容을 要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의 學問 性向과 訓詁學的 成果에 대한 고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1) 丹波元簡의 家系와 그의 著作 및 生涯

丹波氏의 먼 조상은 중국 漢나라 皇室의 後裔이다. 漢나라 靈帝(168-188)의 5世孫이 應神

天皇(270-310년) 무렵에 亂을 피하여 母子와 무리 7인을 거느리고 일본에 歸化했다. 日 皇帝가 그를 大和國 橿隈郡의 使主로 삼았다. 그의 아들 志努가 丹波國 天田郡으로 나와 살았고 6世孫인 康賴가 醫를 배워 그 醫術이 특히 정밀하여 丹波라는 姓을 하사 받는다. 이 때에 와서 비로소 이전의 漢姓인 劉씨 姓과 함께 丹波라는 姓을 갖게 되는 것이고 丹波氏의 始祖가 된다¹⁹⁾. 日本에 현존하는 최고의 醫書이자 隋·唐 百家의 醫論을 수집하여 만든 《醫心方》을 써서 유명한 丹波康賴(단파야스노리, 912-995)²⁰⁾가 바로 그이며, 이들은 대대로 醫師로서 朝廷에 봉직하며 관직을 누리는 벼슬 집안으로 내려오게 된다.

丹波元簡은 바로 이 丹波康賴의 32세 孫이다. 그의 祖父인 元孝 代에 兵庫縣 多紀郡 多紀町에 머물러 살았으므로 元孝가 姓을 丹波에서 多紀로 改姓하여 이후로 多紀로 불리운다. 그러나 그 劉라는 漢姓을 아주 버리지는 않고 家門 내에서는 쓰여 왔다. 丹波의 先祖 중 丹波雅忠은 1081년 三條天皇 때에 晉唐의 方書에 따라 救急方을 수록한 《醫略抄》를 저술하였다.

丹波元簡 一家는 丹波康賴의 13世孫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後孫으로 累代에 걸쳐 醫를 業으로 했다. 그의 祖父의 名은 元孝이고, 元孝는 中國 儒學을 숙지하였고 동시에 中國醫學典籍에 대해서도 통달하여 알고 있었다. 日本 明和 2년(1765년) 그는 江戸에 중국 醫籍을

19) 淺田惟常(宗伯), 《皇國名醫傳》, 皇漢醫學叢書, 上海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

20) 佛敎의 4元素說을 설명한 책도 썼다. 그가 이용한 자료 중에는 《內經》, 巢元方の 《諸病源候論》, 孫思邈의 《千金方》, 그리고 이미 없어져 버린 蘇敬의 《新修本草》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254種의 藥物이 수록되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過去에 있었던 古典의 이름이나 內容을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藥經太素》도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으나, 《醫心方》에 의해 과거에 중요한 醫書로 이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7) 矢數道明(야카즈 도오메이)原著, 裴元植總監修, 《漢方治療百話》, 第六輯, 제2篇 論說篇, <日中漢方醫學 交流의 역사>, 東南出版社, 2000.11, p282

18)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上, 北京出版社, 1994, p787

전문적으로 강론하는 學塾인 蹄壽館을 창립하여 당시에 유명한 醫學家들이 여기서 醫學을 講學하였다. 예를 들어 저명한 本草學家인 小野蘭山도 일찍이 여기서 本草를 강론했다. 丹波元孝의 蹄壽館을 거점으로 해서 일본의 저명한 醫學家들이 배양되고 學風이 조성되는 발판이 되었다.

元孝의 아들은 이름이 元德(1732-1801)으로 號가 蘭溪이고 뒤에 그의 아버지 元孝가 설립한 사립교육기관 蹄壽館을 1791년(寬政3년) 幕府에서 직영하는 醫學館으로 祖職改編하면서 醫學의 講誦은 깊이를 더해 갔고 많은 人才들을 배출하게 된다. 蹄壽館이 醫學館으로 개편된 뒤에 元簡의 부친 元德의 總督하에, 元簡은 助教가 되어, 書를 설명하고 강의함에 부연하여 풀이하는 것이 모두 상세하였고, 학생을 가르침에 피곤한 줄 몰랐으므로 推重받았다. 뒤에 부친의 職을 계승하여 統督에 임명됨에 聲名이 더욱 성대했다.

元簡은 典雅하고 風流가 있어서 書畫를 좋아하고 山水畫에 정밀했으며 氣象韻致가 高高하여 자못 풍치가 있었다. 그 書齋의 이름이 '聿修堂'이다.

丹波元簡(1755년-1810, 寶力5년에서 文化7년까지, 56세卒)은 元德의 長男으로 江戶에서 태어났다. 字는 廉夫이고, 號는 桂山, 安長, 樸窓이고 漢名은 劉桂山이며, 의학계에서는 관습적으로 丹波元簡이라고 한다. 그 아들 元胤, 元堅과 구별하기 위해 '大丹波'라고도 불리운다. 元簡은 어려서 穎悟하였고, 사람됨이 純厚하였으며, 名師인 井上金我로부터 儒學을 익혔고, 醫學을 좋아하여 父業을 이어 마음을 쏟아 열심히 배웠다. 기억력이 따를 자가 없고 聰穎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亨和元年(1798) 醫官을 선발하는 銓衡場에 나갔을 때 後宮이 추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能한 것이 없음에 감개하여 直言으로 諫하여 다른 의견을 보였다가 皇上의 뜻을 위배하여 侍職에서 파면되어 外班으로 내 쫓겼다. 이 때《

醫賸》을 지었다. 12년 뒤인 文化10年(1810년) 다시 幕府의 부름을 받아 後宮醫班에 들어가 奧醫師²¹⁾로 재 임용되어 御匙²²⁾로 활동하다가 같은 해 겨울 12월 2일 急疾이 發病하여 急逝하였으니 享年 56歲이다.

元簡의 주요 著作으로는 《素問識》, 《靈樞識》, 《傷寒論輯義》, 《金匱要略輯義》, 《脈學輯要》, 《脈學匯粹》, 《醫賸》, 《素問解題》, 《救急選方》등이 있다. 그의 저작은 크게 三大部類인 《內經》, 傷寒·金匱, 脈學으로 대별된다. 元簡은 復古에 뜻을 두고 訓詁를 통한 古經典의 解讀에 심혈을 쏟았다.

2) 丹波元簡의 學問의 性向

(1) 儒學을 바탕으로 한 醫學家門의 子弟로 태어남

元簡은 累代에 걸쳐 儒學을 바탕으로 醫學에 종사해온 醫家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家業인 醫業을 이어받아, 아버지 藍溪公의 庭訓을 받들어 醫學 經典을 연마하였다.²³⁾

祖父 元孝는 儒家가 문화의 중심이었던 江戶前期에 생활하여 儒學에 정통하였고, 中國醫籍을 숙지하였으며, 古典醫籍을 講授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學塾인 蹄壽館을 창립하였다. 蹄壽館을 통해 丹波家族은 물론 기타 醫學徒들을 대상으로 醫籍을 講授하여 醫學界에 일군의 傑出한 인물들을 배양해 냈다. 元簡의 父

21) 醫官의 최고 지위로 將軍의 診候를 직접 맡아 관장했다. 奧醫師는 醫官의 高位職으로 將軍의 診候와 醫藥을 장악하였는데, 그에 임명되면 法限에 絀品되었다. 항상 20인 內外로 임명하였으며 世襲해 내려오는 것 외에도 蕃醫나 市井醫 중에 技術이 精巧한 醫師들 중에 발탁되었다.

22) 御匙: 奧醫師로서 실제 將軍의 측근에서 診治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으니 항상 세력이 있었다.

23) “余蚤承箕裘之業, 奉先考藍溪公之庭訓, 而治斯經。” —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 全13卷 中(一), 《素問識》序文,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1

元德은 淸 乾·嘉의 學風이 風靡하던 일본 江戸中期에 생활하였다. 소년시절에는 부친 元孝의 엄격한 訓導를 받아 뜻을 세워 醫學과 儒學에 두루 통달하였고, 中年의 나이에 이르러 父業의 뜻을 크게 마음에 새겨 蹄壽館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아들 元簡을 근엄하게 訓導했다. 元簡은 마침내 醫學과 儒學 두루 통달하게 된다.

元簡은 그 父親의 지도하에 中國 經史子集 등 古籍을 博覽하였으며, 그 중 小學²⁴⁾을 익히는 데에 더욱 치중하여 이후에 研究課題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基礎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淸 考證學의 영향으로 訓詁 考據學에 대한 基礎知識 함양하는 데에 힘썼으니, 醫學徒들을 대상으로 醫籍을 講授하던 蹄壽館에서 배출된 傑出한 人物의 하나이다.

그의 풍부한 讀書力과 英敏한 記憶力은 《內經》 글귀의 淵源을 追跡해 들어가는 데에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素問識》 전반에 걸쳐 그가 인용하고 참고한 工具書와 諸子百家書와 醫書を 통해 그 實體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는 어려서 근엄한 父親의 가르침 아래 폭넓은 知識과 思惟의 世界를 구축하였고, 때 마침 불어오는 淸 考證學의 영향으로 文獻訓詁에 대한 基礎知識을 쌓아 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訓詁作業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공부를 함에 있어 투철한 探究의 자세로 임했다.

王太僕의 次註를 중심으로 삼아 연구하였으며 편한 잠자리를 마다하고 잠을 아껴가면서 부지런히 10여년을 연구했으나, 《內經》의 《素問》 공부를 위한 그의 學問 探究의 熱情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²⁵⁾. 그는 《內經

》공부의 바탕을 王冰註를 근본으로 삼되, 王冰註 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王冰이 註한 내용이 간혹 經典의 뜻을 충분히 드러내주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미처 빠뜨리고 註釋을 달지 않은 것이 있어서 元簡의 《素問》공부에는 완전한 滿足을 주지 못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經旨를 천발할만한 것을 책의 옆 공간에 작은 글자로 기록해 나갔으며, 그것이 나중에는 여백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고 있으니, 그의 《內經》工夫가 얼마나 자세하고 精密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나이가 半白이 됨에 두 눈이 흐려지고 眵해져, 한 글자도 써 내려갈 수 없다²⁶⁾고 했으니, 老眼이기는 했겠으나, 아마도 研究에 몰두하느라 精氣를 많이 소진시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著作 性向은 한결같이 各家의 註를 匯集하여 註釋을 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0여년간 그의 열정을 쏟아 만든 《素問識》이다. 그는 “이전의 여러 注釋家들의 註 중 올바른 것을 채택하고 이들을 經典과 諸子百家의 책을 두루 참고하여 빠지고 잘못된 것을 보충하고 바로잡아 나갔다”²⁷⁾

(2) 淸 考證學의 接木—訓詁考據學派의 主將이 됨

元簡은 淸 考證學의 영향으로 訓詁考據學에 대한 基礎 知識을 쌓았고²⁸⁾, 이것을 실제 《素

學叢書》, 全 13卷 中(一), 《素問識》序文,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1

26) “年踰半百, 雙眸混濁, 不能作蠶頭書” 一上揭書, 《素問識》, 序文, p1

27) “於是, 採擇馬蒔·吳崑·張介賓等諸家之說. 更依朱氏之言, 參之於經典百氏之書, 以補其遺漏, 正其紕繆.” 一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 全 13卷 中(一), 《素問識》序文,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1

28) 元簡은 《素問識》 전체에 걸쳐서 訓詁學 工具書(字典類 및 《日知錄》, 《通雅》, 《丹鉛錄》 등)를 능숙하게 운용하여 글자를 풀이해

24) 文字學, 聲韻學, 訓詁學 등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

25) “屹屹菲枕, 十餘年矣. 然問有於經旨未愜當者, 又有厝而不及註釋者. 至文字同異, 釋言訓義, 凡可以闡發經旨者, 簡端行側, 細字標識, 久之, 至側理殆無餘地矣.” 一 陳存仁 編校, 《皇漢醫

問識》를 분석하는 道具로 사용하고 있다. 元簡이 《素問識》에서 訓詁註釋 작업에 사용한 工具書を 근거로 하여 그의 學問이 明清 考證學의 영향을 받은 자취를 확인해 보고 그들과의 接木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元簡의 《素問識》에는, 明代 中葉 博學者者로 일컬어졌던 楊愼의 《丹鉛錄》의 內容을 引用하여 사용한 곳이 4곳에 나타나고 있다.²⁹⁾ 다음은 明末 清初代의 뛰어난 訓詁學家인 方以智의 學에 대한 깊은 영향을 받았다. 方以智의 《通雅》³⁰⁾의 內容을 引用하여 사용한 곳이 15군데³¹⁾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元簡은 이미 《通雅》의 內容을 숙지하여 능숙하게 활용했으며, 그의 학문에 대한 접목이 있었음을 추단해 볼 수 있다. 이어서 清代 考證學에 있어서 가장 핵심³²⁾이라 할 수 있는 顧炎武의 《日知錄》과 《金石文字記》의 內容을 引用하여 사용한 곳이 대역섯 군데³³⁾에 나

나가는 대목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訓詁學的 方法論'에서 다루고자 한다.

- 29) <生氣通天論篇第三> “苛疾”의 註와, <寶命全形論第二十五> “黔首共餘食”의 ‘黔首’에 대한 註와 <脈解篇第四十九> “正月太陽寅”의 註에서 楊愼의 《丹鉛錄》의 內容을 근거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다.
- 30) 方以智 : 安徽桐城人, 明 崇禎 庚辰(崇禎十年, 1637년)에 進士가 되었고, 翰林院檢討의 벼슬을 했다. 저술로는 《通雅》52권이 있다. 그 뒤에 《物理小識》12권을 덧붙여 넣어 《通雅》와 서로 보충하고 증빙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通雅》는 인용 자료에 반드시 書名을 들어 주어서 조사하는 데에 편리하게 했다. 醫籍訓詁에 있어서의 必讀書이다.
- 31) <調經論> “故得六府”, <上古天真論> “幼而徇齊”, “天癸” <陰陽應象大論> “氣歸精歸化” <陰陽離合論> “霧重霧重”, <五藏生成論> “府揭”, “如以縞裹朱”, <平人氣象論> “其動應衣”, <玉機真藏論> “眇”의 註 등에서 《通雅》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32) “顧炎武, 考證之學, 最爲精核” — 電子版, 文淵閣, 四庫全書, 上海涵分樓藏本, 史部二, 編年類, 《竹書紀年》, 人民衛生出版社,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년판
- 33) <金匱眞言論>의 “平旦”, “黃昏”, “鷄鳴”의 註와 <刺禁論>의 “要害”와, <骨空論>의 “髀”

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한 예로 <金石文字記>의 말을 빌어 글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가한 것이 있다³⁴⁾.

元簡이 顧炎武의 金石文字記에 대한 內容을 들어 설명한 것을 보면 그가 이미 金石文字學을 익혀 그에 대한 造詣가 어느 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고, 顧炎武의 學에 接木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 준다.

明代 訓詁學的의 大家인 楊愼을 위시하여 方以智의 《通雅》를 아주 친숙하게 사용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方以智의 뒤를 이은 清代 顧炎武의 《日知錄》, 《金石文字記》의 內容에 대한 內容을 인용하여 언급한 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元簡이 清代 訓詁學的의 學脈을 접하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의 아들 元堅 역시 父親의 뒤를 이어 清代 訓詁學家인 段若應·阮伯元·王伯申의 學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통해 이들의 좋은 점을 취하여 받아들여게 된다³⁵⁾. 이로써 楊愼·方以智·顧炎武를 거쳐 戴震의 제자들인 段玉裁·阮元·王引之로 내려가는 明·清代 訓詁學的의 學統이 元簡의 아들 元堅에게 이어져 내려가 이를 더욱 繼承發展시키게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의 著作은 醫學 古籍을 연구하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으며, 중국 清末 訓詁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清代 樸學的의 학풍이 日本 醫學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日本 醫學界에서는 古典 醫籍의 語言文字를 해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한 學派가 출현하게 되는데, 日本에서는 이를

의 註

- 34) “簡按 新校正云, 曰作日爲是, 又唐人日曰二字同一書法, 詳見于顧炎武金石文字記” — <上古天真論篇第一> “其民故曰朴”의 ‘曰’에 대한 註
- 35) “乾隆以來, 學者專治小學, 如段若應阮伯元王伯申諸人, 其所集著, 可藉以證明經義者, 往往有之, 亦宜摘錄以補原識者矣.” —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全 13卷 中(二) 《素問紹識》序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1

‘折中學派’라고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訓詁考據學派이다. 이 學派의 主將은 丹波元簡이고, 그 다음은 山田正珍이다. 日本 漢醫界의 訓詁考據學派는 계속해서 巨作이라 할 만한 著作들을 만들어낸다. 《素問識》, 《傷寒論輯成》, 《素問紹識》, 《傷寒論文字考》등과 같은 것이 그 실례에 해당한다.”³⁶⁾

元簡은 淸 考證學의 영향으로 訓詁考據學에 대한 基礎知識 함양하는 데에 힘썼다. 中國 經史子集 등 古籍을 博覽하였으며, 그 중 小學을 익히는 데에 더욱 치중하여 이후에 研究課題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基礎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元簡은 朴學과 考據學이 흥성하는 시대적 배경 하에 家學과 師承에 의한 長期訓導와 교육을 더하여 마침내 古據派의 宗師가 된다.

(3) 古方派와 後世方派의 折衷—朱丹溪 學術의 接木

元簡은 《內經》에 이어 傷寒·金匱, 脈學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었으니, 《傷寒論輯義》, 《金匱要略輯義》, 《脈學輯要》, 《脈學匯粹》가 그것이다. 그의 著作이 보여주듯이 《內經》과 張仲景의 《傷寒論》등 古代醫籍을 더욱 중요한 흔적이 보이니, 元簡은 어쩌면 醫學經典의 道를 밝히는 ‘復古’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宋시대의 醫學體系보다는 古代의 經典을 중요시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古方派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元簡은 古方派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後世方의 長點도 적극 받아들여 均衡있는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內經》과 《傷寒論》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는 朱丹溪를 깊이 연구한 흔적이 보인다. 元簡은 《素問識》 序文에서 《素問識》의 책의 성격을 논함에 있어 朱丹溪의 말을 빌려 자신

의 의견을 대신한 것이 있다³⁷⁾. 元簡은 여기서 평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朱丹溪의 말을 빌려 대신하고 있다. 그가 序文 첫머리에 丹溪의 글을 인용했다는 것은 丹溪의 平素文章觀인 載道論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를 근거로 보더라도 당시 朱丹溪를 위시로 한 後世波의 醫學은 元簡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元簡의 醫學的 바탕을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元簡이 인용한 朱丹溪의 글은 《格致餘論》 序文의 글이다. 元簡은 이미 《格致餘論》이라는 朱震亨의 글을 읽어 後世波의 宗主인 丹溪의 醫學과 접목이 있었고, 이는 丹溪 醫學이 그의 醫學的 토대를 구축했을 가능성의 단서를 보여주는 것이며, 어쩌면 朱震亨의 學을 이미 숙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에 대한 증거로 《素問識》 여러 곳에서 그의 說을 인용하여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한 곳이 있다. 元簡은 《素問識》 여러 곳에서 丹溪의 說을 언급한 것이 있다³⁸⁾. 그는 일찍이 《內經·素問》을 풀이함에 있어서 丹溪의 著作 내용을 능숙하게 分析하여 是非를 가려내고 있음을 알았고, 그는 이미 丹溪의 醫學적 思想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37) “丹溪朱氏云, ‘素問, 載道之書也. 詞簡而義深, 去古漸遠, 衍文錯簡, 仍或有之, 故非吾儒不能讀.’ 信哉! 言也.”—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 全 13卷 中(一), 《素問識》序文,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1

38) ①丹溪의 說을 받아들인 것 : <六節藏象論> 篇第九 “四倍已上爲關格”의 註, <生氣通天論> “因於暑寒”의 註, <生氣通天論> “因於濕首如裹, 濕熱不攘”의 註에 朱氏가 새로 章句를 정했음을 말하고 개정한 내용을 소개. ② 朱丹溪의 說을 바로 잡은 것 : <四氣調神大論> 篇第二 “春夏養陽”의 註, <生氣通天論> “因於氣爲腫”, <生氣通天論>에서 朱氏가 새로 章句를 정했음을 말하였고, 아울러 <痺論篇>의 “尻以代踵, 尺以代頭”라고 한 것에서의 ‘代’가 이것과 같은 뜻을 밝히고 있다.

36) 錢超塵, 《中醫古籍訓詁研究》, 貴州人民出版社, 1984, p14

(4) '溫故知新'의 '實踐' — 醫學經典의 道를 밝히는 '復古'에 힘씀

元簡의 전체 學問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意識은 尙古主義이다. 그가 말하는 復古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學問的·時代的 後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深奧한 뜻을 담고 있는 옛 醫學經典의 뜻을 올바르게 파헤쳐 알아내자는 것이다. 元簡은 《素問識》序文에서 《素問識》의 책의 성격에 대해 논한 것이 있다.

"丹溪朱氏云, '素問, 載道之書也. 詞簡而義深, 去古漸遠, 衍文錯簡, 仍或有之, 故非吾儒不能讀.' 信哉! 言也." — 《素問識》序文³⁹⁾

元簡은 여기에서 《素問》은 道를 실어 나르는 책으로 말이 簡略하고 뜻이 깊어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참으로 인식하였다. 《素問》은 專門醫理를 담고 있는 醫學書임을 천명하고 있다. 元簡은 《素問識》序文 첫머리에서 평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朱丹溪의 말을 빌려 대신하고 있다. 그가 序文 첫머리에 丹溪의 글을 인용했다는 것은 丹溪의 平素 文章觀인 載道論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古文論者들은 文以載道를 주장했다. 文을 통해서 道를 실어 표현하는 것이니, 文은 道를 실어 나르는 도구와도 같은 것이며 道를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文이라는 표현수단을 필요로 한다. 元簡은 丹溪와 같이 載道論의 입장에 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文은 모름지기 道가 실려 있어야 하며, 거기에 실려 있는 道를 알아내는 것이 學問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本質이라는 것이다. 經學에서 말하는 義理와 함께 醫學에 있어서의 醫理도 道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經學과 醫學을 동등한 위치에

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醫理를 담고 있는 《素問》의 道를 알기위해서는 文을 통해야만 하는데, 그 文이 또한 시대가 멀어질수록 衍文과 錯簡이 간혹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專門으로 연구하는 學者가 아니면 解讀할 수 없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專門의 研究의 努力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學者로서 經文의 解讀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專門의 素養과 知識을 갖추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醫學의 知識과 訓詁學的 知識의 素養을 함양하여 이를 바탕으로 難解한 책을 풀어가야 하는 學者로서의 使命感과 目的意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아들 元堅은 《素問識》跋文에서 아버지 元簡에 대해 말할 때 “復古에 독실한 뜻을 두고 있었음(篤志復古)”⁴⁰⁾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아버지 元簡의 생각을 대신하여 기술하기를 “古書を 읽으려거든 반드시 먼저 詁訓에 밝아야 한다(讀古書, 必先明詁訓)”⁴¹⁾고 하면서 復古를 위한 方便으로 詁訓에 밝아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詁訓이 이미 밝혀지면 그 속에 담긴 이치가 풀릴 수 있다(詁訓既明, 理經可得而釋)”⁴²⁾고 말하고 있다. 그가 復古의 주 對象으로 삼은 것은 古醫學 經典인 《內經》과 《傷寒論》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道를 밝혀내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後世의 讀者들이 往往 王冰을 소홀히 생략하고 다시는 깊이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면서, 이는 심히 '尙古' 하는 뜻을 잃는 것이 된다고 있다.

素問 楊上善太素, 全元起訓解亡, 王冰而降, 至元明清註者, 亡慮數十家. 意見各出. 雖有彼善於此, 亦未能無紕繆. 學者要在於取其長而捨其短焉. 皆在今世, 王實爲之祖, 但後世諸家所解, 踵事

39)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 全 13卷 中 (一), 《素問識》序文,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l

40) 上揭書, 《素問識》跋文, p322

41) 上揭書, 같은 곳

42) 上揭書, 같은 곳

加精。則讀者往往忽略王冰，不復章思，甚失尚古之意。故今先即次注解之。而後及諸家云。⁴³⁾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두가 옛 것을 저버리고 새로운 것만을 좇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염려하면서 옛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發展을 모색해 나가야함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內經》 공부에 있어서 王冰을 祖宗으로 삼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尚古하는 精神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다. 元簡의 學問의 바탕은 濫故知新의 精神하에 《內經》과 《傷寒論》에 대한 復古가 투철했으며, 復古를 위한 方便으로 詁訓을 연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內經》研究에 있어서 詁訓學的 기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元簡은 復古의 바탕을 더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儒學을 母體로 한 그의 學問 속에 孔子의 ‘述而不作’하던 撰述精神이 은연 중 녹아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한다. 儒家들은 말하길, 孔子가 당시의 學問과 思想이 混亂의 와중 속에 根據도 없이 새로운 것만을 외쳐대는 妄術家들의 폐단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 말이 ‘信而好古’하고 ‘述而不作’하였다는 것이다. 或者들은 이를 잘못 왜곡하여 孔子를 철저한 復古主義者라고 매도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孔子는 復古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이다. 새로운 創造를 위한 復古이었던 것이다. 復古의 충실함 속에 새로운 知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復古도 맹목적인 復古만 아니라면 이전의 것을 撰述하기만 해도 그 과정 속에는 撰述하는 이의 생각이 정리되어 나타나는 것이니 만큼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思想의 정립이자 새로운 學問의 發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孔子와 마찬가지로 元簡은 《素問識》 전반에 걸쳐 이전의 것 중 繁

多한 것을 간추리고 是非를 가려 요점만을 가려 뽑아 정리하는 撰述작업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濫故에만 머물면 그것은 옛것에 얽매이는 泥古가 되고 知新에만 힘써도 근거 없는 虛誕한 것이 되기 쉽게 마련이거늘, 元簡은 濫故와 知新을 均衡있게 調和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는 學問에 있어서 詁訓을 중요시했으니 옛 것의 바탕이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發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學問의 바탕이 되는 根本을 중요시했으니, 孔子가 말한 ‘禮는 그 奢侈하기보다는 儉素한 편이 낫다(禮, 與其奢也, 寧儉)’고 한 말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元簡이 말하는 ‘復古’는 단순히 復古에 머무르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發展을 위한 준비과정이었으니, 옛것을 바탕으로 復古에 충실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主觀을 가지고 새로운 理論을 세워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힘썼던 것이다. 결국으로는 復古를 외쳤으나 그의 정신 裏面에는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겠다는 濫故知新 精神을 몸으로 實踐하였던 것이다.

(5) 實事求是에 힘씀 — 醫理와 臨床의 결합

江戶時代는 중국의 清代에 해당하는데, 清代에는 朴學(實學)이 성행하여 治學方法과 學術思想에 있어서의 朴學이 日本의 學術界와 思想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元簡은 現實을 도의시한 虛構의인 理論에 빠지는 것을 배격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雖未能擅斯道之至蹟。鈎經文之深義，然是知明清諸註，句外添意，鑿空臆測，以爲得岐黃未顯之微言者，其於講肄之際，或有資于稽考歟？ — 《素問識》序文⁴⁴⁾

43) 上揭書, <素問解題>,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5

44) 丹波元簡, 《素問識》, 序文,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全 13卷 中 (一), 上海中醫學

元簡은 자신의 능력으로 《內經》을 완전히 해독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內經》 공부의 어려움을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明·清代의 여러 학자들이 宋나라 性理學과 李·朱醫學의 영향으로 圖式的 理論에 빠져, '句 밖에 뜻을 첨가하고 虛荒된 것에 집착하여 있지도 않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내고는' 마치 岐伯과 黃帝가 미처 발하지 않은 새로운 말뜻을 알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는 병폐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글귀를 풀이함에 있어서 實質의 根據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醫學의 理論은 어디까지나 現實的 臨床實踐을 바탕으로 한 理論이어야지 지나치게 理論에만 집착하다보면 허황된 空理空論에 빠질 수 있으며, 이러한 學問은 醫學의 發展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들 元堅은 “당시의 註家들이 高遠한 것에만 힘쓴 나머지 實事求是 精神이 결여되었음(注家或務之高遠, … 少能有實事求是者)”⁴⁵⁾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에 《素問識》는 實事求是에 힘쓴 결과 “그 繁多한 것을 덜어내고 그 要點만을 추려내고 책 내용에 흠뻑 빠져들어 탐색해 냈으니,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미루어 밝혀내는 것에 힘썼다(芟其繁, 掇其要, 涵泳玩索, 務推闡秘蹟)”⁴⁶⁾고 評하고 있다.

元簡은 《素問識》 全篇에 걸쳐 《內經》에 나오는 理論이나 病證에 대해 그와 관련된 醫論이나 處方⁴⁷⁾을 소개하여 실제 臨床에 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힘쓴 흔적을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內經》과 《傷寒論》을 넘나들면서 이들 서로간의 관련성을 찾아보려 힘쓴 흔적이 보인다.⁴⁸⁾ 이는 《內經》의 理論과 病證에 대해, 실제 臨床과의 連結고리를 탐색해 보려는 試圖의 하나일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가 醫學原論을 다룬 《內經》 醫論을 바탕으로 삼고, 이를 실제 臨床實踐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힘썼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醫理는 理論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臨床과 결합하여 患者를 치료하는 根據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한갓 허황된 空論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니, 理論과 臨床의 調和를 중시한 現實的 實踐 醫學家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素問識》는 바로 實事求是의 樸學으로부터 影響을 받은 實證主義의 思考의 産物인 것이다.

元簡의 學問의 바탕은 溫故知新的 精神하에 《內經》과 《傷寒論》에 대한 復古가 투철했으며, 復古를 위한 方便으로 誥訓을 연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한편 復古를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取長捨短하는 가운데 자신의 意見을 개진하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새로운 知新的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溫故를 바탕으로 한 知新的의 均衡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 清代 朴學의 影響을 받아 空理主義의 폐단을 배격하고 理論보다는 實踐을 중시하는 實事求是를 지향하였으니, 現實을 바탕으로 한 實證主義의 醫學家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院出版社, 1993, p1

45) 上揭書, 跋文, p322

46) 上揭書, 같은 곳

47) 元簡은 《素問識》 全篇에 걸쳐 120여종에 해당하는 관련 醫學 專門書籍을 동원하여 醫論 및 處方에 대한 記述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은 인용된 처방내용의 일부이다. 그는 《素問識》에서 ‘肺消’·‘涌水’·‘鬲消’·‘口糜’·‘瘧瘵’등 여러 병증에 대한 處方을 곁들이고 있다(肺消 方出于聖濟總錄58卷, 涌水 方具聖濟總錄79卷, 鬲消 方具于聖濟總錄49卷, 口糜 方具于117卷, 瘧瘵 方具于聖濟總錄50卷)

48) 元簡은 《素問識》 여러 곳에서 《傷寒論》의 글을 인용하여 《內經》과의 관련성을 맺어 보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한 예로 <生氣通天論> “溫病”에 대한 풀이에서 “仲景이 말하길 ‘太陽病이 發熱하고 渴症을 느끼며 惡寒하지 않는 것은 溫病이다’라 한 것이 그것이다(仲景曰‘太陽病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是也)”라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參對仲景之書, 以示互相發明之旨焉”하였던 것이다.

3. 《素問識》에 나타난 訓詁學的方法論 考察

元簡은 訓詁學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분석 하에 《內經》 經文의 要旨를 명쾌하게 揅發하는 成果를 구축해 나간다. 이제 元簡이 어떠한 訓詁學的方法論을 동원하여 《內經》 訓詁註釋作業에 임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平人氣象論篇 第十八>의 “其動應衣, 脈宗氣也”에 대한 註에서 元簡이 ‘古訓’에 대해 直接的으로 언급한 것이 있다.

簡은 살피건대 ①<五味篇>에 ‘大氣는 胸中에 쌓여있으니, 命名하여 氣海라 한다’ 했고 <邪客篇>에 ‘宗氣는 胸中에 쌓여 있다’라 한 것이 모두 이 뜻이다. ②<通雅>에 이르길 ‘宗과 尊은 한 글자이다’라 했다. ③《孝經》의 ‘宗祀’에 대한 註에 ‘尊은 祀이다’라 했고, 王冰도 이르길 ‘宗’은 ‘尊’이라 했다. 이것이 바로 古訓이다(簡按 <五味篇>曰, 大氣積於胸中, 命曰氣海. <邪客篇>曰, 宗氣積於胸中, 皆此義也. <通雅>云, 宗尊一字, 《孝經》宗祀註尊祀. 王云, 宗尊也. 此乃古訓.)”

元簡은 여기서 옛 글자를 풀이하는 古訓에 대한 方法論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가 풀이한 내용을 분석해 보자.

① 以經解經 : 《內經》의 原文을 이용하여 經典을 풀이하는 방법. 《內經》 經文인 <靈樞·五味篇>과 <靈樞·邪客篇>의 原文을 들어 ‘宗氣’에 대해 직접적인 풀이를 하고 있다. <五味篇>에서 말한 ‘大氣’는 즉 <邪客篇>에서 말한 宗氣이며, 이들은 모두 胸中에 쌓여있으니, 이를 이름하여 氣海(氣의 바다)라 한다는 것이다.

② 訓詁 工具書 및 古代 註釋書를 이용하여 글자를 풀이함 : 訓詁書인 《通雅》를 통해 ‘宗’이라는 글자가 ‘尊’이라는 뜻으로 풀이된 用例를 들어 글자를 해석하고 있다.

③ 《內經》과 同時代에 쓰여진 經史 諸子 百家書에서 《內經》 字句와 같은 用例로 쓰인 것을 들어 傍證을 취함 : 《孝經》의 ‘宗祀’에 대한 註를 인용하여 ‘宗’이라는 글자가 ‘尊’의 의미로 풀이된 用例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傍證을 취함에 있어서는 두 개 이상의 用例를 들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信賴感을 줄 수 있도록 함 : 《孝經》의 ‘宗祀’에 이어서 王冰도 ‘宗’은 ‘尊’이라 했다고 하는 말로써 그 뜻을 確固하게 규정짓고 있다. 이는 또한 이전의 여러 註 중 옳다고 생각되는 王 註를 받아들여 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讀者로 하여금 한 치라도 異議를 제기할 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완벽에 가까운 實證主義의 思考를 말해준다. 訓詁는 철저한 考證精神의 발로이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를 통해 元簡이 訓詁를 통한 註釋作業에 있어서 그가 사용했던 訓詁學的方法論의 大綱을 알 수 있으며, 이는 《素問識》 全篇을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그의 精神이기도 하다. 그는 첫째, 經典의 原文을 근거로 한 풀이를 우선으로 하였다. 둘째, 글자를 풀이하는 工具書로는 字書와 여러 註釋書를 근거로 글자풀이를 진행해 나갔다. 셋째, 《內經》과 同時代에 쓰여진 經史·諸子百家書에서 《內經》 字句와 같은 用例로 쓰인 것을 들어 文獻的 根據를 대고 있다. 넷째, 이전의 여러 注釋家들의 註를 匯集하여 이들을 比較分析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렸으며, 자신의 獨創의 意見을 개진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經典과 諸子百家의 책을 두루 참고하여 빠지고 잘못된 것을 보충하고 바로잡아 나갔던 것이다. 다섯째, 이밖에 訓詁學的方法論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通假字를 이용하여 글자를 풀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그가 가장 비중있게 다루었던 것이기도 하다. 여섯째, 폭넓은 讀書과 방대한 基礎資料를 具備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素問識》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訓詁를 하기위한 準備科程의 하나이다.

이들에 대해 다시 內容 특성별로 묶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자.

1) 폭넓은 讀書와 방대한 基礎資料 具備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元簡의 學問은 儒學과 醫學을 바탕으로 하고 小學을 통해 보다 치밀한 醫籍訓詁學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풍부한 讀書力과 英敏한 記憶力은 《內經》 글귀의 淵源을 追跡해 들어가는 데에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素問識》 전반에 걸쳐 그가 인용하고 참고한 工具書와 諸子百家書와 醫書를 통해 그는 이미 《內經》 訓詁를 위한 事前作業으로 방대한 基礎資料들을 갖추어 놓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어려서 근엄한 父親의 가르침 아래 폭넓은 知識과 思惟의 세계를 구축하였고, 때마침 불어오는 淸 考證學의 영향으로 文獻訓詁에 대한 基礎知識을 쌓아나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訓詁作業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基礎資料들을 具備해 놓았던 것이다.

作者의 길이 비록 힘들다고는 하나, 그 作者의 의도를 읽어내는 訓詁 註釋家의 일은 더 더욱 어렵다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폭넓은 讀書와 訓詁를 위한 방대한 基礎資料를 具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앞의 1章 '다. 訓詁學의 發興'에서 살펴보았듯이 日本에서의 知識階層에 속하는 多數의 醫家들은 대부분 幕府의 醫官이거나 地方 藩醫의 신분이었으며, 이들 醫家들은 기본적으로 世襲하여 그 名聲과 權威를 인정받아 지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그들은 幕府의 권력을 이용하여 稀貴한 古文獻資料를 수집하거나 이들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考據學 方面에 있어서의 元簡은 醫學에만 한정

하지 않고 經史이외의 漢籍 및 國學 등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섭렵해 들어감으로 해서, 그 함양한 수준이 넓었다.

元簡은 〈素問諸家注解書目〉에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註釋書의 書目を 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素問에 대한 註釋作業을 빠짐없이 해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이미 訓詁를 위한 충분한 資料를 具備해 놓았을 것이라는 일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根據가 되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素問諸家注解書目〉에서는 시대에 따라 순서대로 전해오는 版本을 열거하고 있다. 資料를 열거함에 있어서는 存(있음), 佚(유실됨), 未見(판본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 확인된 것이 없음)으로 나누어 體系的인 分類를 해놓아, 당시의 古醫籍에 대한 存佚의 상황을 한눈에 훤히 내려다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素問諸家注解書目〉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 한 예로 元簡은 이대 書目 중에 “살피건대 위에 있는 것들은 《圖書集成》 藝術典에 있는 것이다(按右圖書集成藝術典所在).”라 한 것이 있다. 이 말을 통해 元簡이 《素問識》를 편찬할 당시에 《古今圖書集成》⁴⁹⁾이 이미 日本에 전해져 資料集으로 확보되고 있었으며, 그것을 직접 보고 考證 資料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단해 볼 수 있다. 또한 隨 楊上善이 撰한 《黃帝內經太素》三十一卷이 散佚되어 없어졌음을 말하고, 아울러 唐 王冰 次注本인 《黃帝素問》二十四卷과 《釋文》一卷이 實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⁵⁰⁾.

49) 《古今圖書集成》: 類書의 하나. 明 永樂大典에 준거하며 18세기 康熙 만년에 시작하여 雍正帝 때에 완성됨. 康熙帝의 칙령에 의해 진몽뢰(陳夢雷) 등이 편찬에 착수하고, 다시 장정석 등이 雍正帝의 칙령을 받아 증정하여, 1725년에 완성한 중국 최대의 백과사전. 모두가 1만 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것으로, 역상(曆象)·방어(方輿)·명륜(明倫)·박물(博物)·이학(理學)·經濟의 6위편(彙編)으로 나누고, 그것을 32전(典) 6,109부(部)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각 항목마다 고금을 통한 문헌을 망라한 것으로, 모든 사항의 연혁·변천을 아는 데 매우 편리한 책이다.

그 중 《熊氏本》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은 趙府本에 의거한 것으로 從德堂에서 간행했다. 本邦의 活字本과 아울러 朝鮮本은 이것을 祖本으로 한 것이다”⁵¹⁾라 하여 당시에 日本의 活字本과 朝鮮本の 原本으로 쓰이던 것이 《熊氏本》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나오는 板本으로 《萬曆本》을 들고 있는데, 萬曆 甲申에 對峰 周氏가 刊行한 것으로 역시 熊本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글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 日本 지방에서 간행되는 것이 즉 이 본이다. 그러므로 《素問識》에 標記한 原文이 모두 이것을 根本으로 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⁵²⁾.

이밖에도 여러 訓詁學 工具書와 諸子百家書와 醫書들을 鑑別하여 加추어야만 했으니, 이에 대한 것은 본 단 뒤의 ‘라. 철저한 考證作業’에서 그가 考證資料로 사용한 訓詁學 工具書와 註釋書·醫書들에 대해서 자세히 열거하기로 한다. 元簡은 訓詁學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분석 하에 《內經》經文의 要旨를 명쾌하게 闡發하는 成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經史諸子百家書에 걸친 폭넓은 讀書力과 방대한 訓詁學的 資料를 구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 各家學說을 匯集하여 取長捨短하여 一家의 말을 이룸

- 50) “隨《黃帝內經太素》三十一卷 佚 楊上善撰 舊唐經籍志 唐《黃帝素問》二十四卷 《釋文》一卷 存 王冰注 冰號啓玄子 新唐藝文志” —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諸家注解書目》,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 全 13卷 중 (一),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2
- 51) “按此一依趙府本, 亦從德堂所刊. 本邦活字本, 並朝鮮本, 以此爲祖本.” —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諸家注解書目》,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 全 13卷 중 (一),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2
- 52) “《萬曆本》24卷, 萬曆甲申, 對峰周氏刊行, 亦依熊本, 然文少異. 本邦坊刊所刻, 卽此本. 故《素問識》所標記之原文, 全本于此.” — 上揭書, 같은 곳

元簡은 이전의 모든 各家의 註釋書를 구비해 놓고 이들을 정밀히 踏讀하여 이들의 內容을 會通하고는 그에 대한 比較分析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一家의 說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元簡은 <素問解題>에서 《素問》을 어떤 지침 하에 정리해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素問 楊上善太素, 全元起訓解亡. 王冰而降至元明清, 註者亡慮數十家. 意見各出. 雖有彼善於此, 亦未能無紕繆. 學者要在於取其長而捨其短焉. 皆在今世. 王實爲之祖, 但後世諸家所解, 踵事加精. 則讀者往往忽略王冰, 不復覃思. 甚失尙古之意. 故今先卽次注解之 而後及諸家云.) — 《素問識》 <素問解題> 53)

元簡은 素問에 대한 註釋書로서 楊上善의 《太素》와 全元起的 訓解가 亡失되었음을 아쉬워하면서, 王冰 이후로 元·明·清에 이르기까지 註家들이 무려 數十家가 되며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훌륭한 의견을 내놓아 精微함에 다다른 것이 많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뛰어난 점이 있기는 하나, 역시 잘못된 것이 없을 수 없으니, 이전의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배우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요점은 이들의 長點을 취하고 그 短點을 버리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 모두가 옛 것을 저버리고 새로운 것만을 좇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염려하면서 옛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發展을 모색해 나가야함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內經》 공부에 있어서 王冰을 祖宗으로 삼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尙古하는 精神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다.

- 53)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解題》,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 全 13卷 중 (一),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1

또한 그는 빠진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갔으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雖經嘉祐閣臣之校補，猶未能精備焉。於是，採擇馬蒔·吳崑·張介賓等諸家之說，更依朱氏之言，參之于經典百氏之書，以補其遺漏，正其紕繆。—《素問識》序文⁵⁴⁾

《新校正》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이전의 여러 注釋家들의 說을 채택하고 이들을 經典과 諸子百家의 書를 두루 참고하여 빠지고 잘못된 것을 보충하고 바로잡아 나갔던 것이다. 元簡은 이전의 것을 맹목적으로 踏襲하여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렸으니 取長捨短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의심나는 것이 있어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여러 說을 취하여 감히 是非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諸家의 註解들이 王氏의 舊說과 그 뜻이 비록 다르다하더라도, 역시 하나의 해석으로 남겨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아울러 채택하여 기록하여 놓았다⁵⁵⁾. 이 또한 後學들을 배려한 깊은 생각에서 온 것이다. '取長捨短'의 구체적 운용 사례에 대해서는 '4. 訓詁學的 成果 考察'에서 자세히 分析考察해 보기로 한다.

3) 通假字 활용 — 訓詁의 핵심은 聲音

元簡은 “옛날에는 假借로 通用하는 것이 頗多했다”⁵⁶⁾라고 했다. 역대 訓詁家들은 일찍이

54) 上揭書, 序文 p1

55) “如其疑義，則舉衆說，不敢決擇是非。諸家註解與王舊說，雖異其旨，亦可以備一解者，並採而載之” — 丹波元簡, 《素問識》序文, 陳存仁編校, 《皇漢醫學叢書》, 全 13卷 中(一),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1

56) “古假借通用頗多” — 〈氣厥論第三十七〉 “癰腫少氣”의 註. 丹波元簡 《素問識》, 陳存仁編校, 《皇漢醫學叢書》, 全 13卷 中(一),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170

訓詁의 核心은 假借의 原理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運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元簡은 《素問識》 전편에 걸쳐 難解한 《內經》 글귀에 대해 通假字를 이용하여 이전의 註釋家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명쾌한 풀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通假字의 구체적 運用成果에 대해서는 '4. 訓詁學的 成果 考察'에서 자세히 分析考察해 보기로 한다.

본 節에서는 訓詁學에 있어서 通假字란 무엇이고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과연 어느 정도이며 실제 通假字에 있어서 音을 어떻게 적용하며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通假字의 운용문제를 살피는 準備資料로 삼고자 한다.

先秦兩漢 시대에 假借字가 매우 유행했다. 段玉裁는 《說文叙》 假借 注에 말하길 “漢人들은 通假하는 것이 많았으니 일일이 다 궁구해 볼 수 없다(漢人通借繁多, 不可究詰)”⁵⁷⁾고 했던 것이다. 이는 실제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한 대량의 竹簡帛書에 매우 많은 假借字가 있음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王念孫은 《廣雅疏證自序》중에 “訓詁之旨, 本於聲音”⁵⁸⁾이라 하여, 訓詁의 判건과 核心은 聲音을 통해 字義를 탐구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段玉裁는 〈六書音均表三·古異部假借轉注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 六書에 假借는 音을 위주로 하니, 同音끼리 서로 대신해서 쓴다. 轉注는 뜻을 위주로 하니, 같은 뜻이면 서로 풀이한다. 글자를 처음 만들 때에 音이 있고 나서 글자가 있게 되었으니, 뜻은 音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轉注도 역시 音을 주로 한다. 假借는 同部에서 취하는 것이 많고 異部에서 취하는 것은 적으며, 轉注는 同部와 異部에서 취하는 것이 각기 半이다.⁵⁹⁾

57) 段玉裁, 《說文解字注》, 說文叙, 假借條, 大星文化社, 1990, p756

58) 清 王念孫, 《廣雅疏證》, 江蘇古籍出版社, 2000, 9, p1

글자를 처음 만들 때 음이 먼저 있고 나서 뜻이 있었으니, 글자는 음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 聲音現象은 假借와 轉注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그중 假借는 거의 대부분이 같은 音部の 관계로 이루어진 글자이니 당연히 聲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互訓 또한 글자의 뜻을 저울질하여 서로 통용하는 것이지만 또한 같은 音部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音部の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반씩 차지하고 있으니, 역시 互訓을 살필 때에도 뜻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그 裏面에 聲音의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말하는 聲音은 假借와 轉注를 말하는 것이고, 轉注와 假借는 訓詁를 연구하는 주요한 方便이기도 한 것이다.

聲音에 있어서 그 중 假借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假借는 주로 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訓詁의 中心이 假借字에 있다고 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王引之는 《經義述聞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訓詁之指，存乎聲音。字之聲同聲近者，經典往往假借。學者以聲求義，破其假借之字而讀以本字，則渙然冰釋，如其假借之字而強爲之解，則韻字拘爲病矣"⁶⁰⁾

옛 經典에서 聲同하거나 聲近한 字끼리 서로 通用하는 사례가 흔히 있어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아울러 本字를 모르고 假借한 字에만

업매어 글자를 풀이하다 보면 병폐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즉 經文을 풀이함에 있어 假借字를 破하고, 假借字의 裏面에 숨어있는 本字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다.

假借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同音이고, 둘은 雙聲이며, 셋은 疊韻이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自序 假借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假借의 例는 네 가지가 있다. 同音인 것이 있으니, 德이 惠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疊韻이라는 것이 있으니, 冰이 捌이 되고 馮이 漚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雙聲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 滌가 賴가 되고, 答이 對가 되는 것이다. 合音이라는 것이 있으니, 荒과 蔚가 합하여 蕪가 되고, 蒺과 藜가 합하여 茨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⁶¹⁾

이 중 合音은 두 글자가 합하여 하나의 음을 이루는 것이니 사실 假借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보면 同音, 雙聲, 疊韻 세 가지로 요약된다.

段玉裁도 《六書音均表》의 (一)과 (三)에서 "假借는 同部에서 취하는 것이 많고 異部에서 취하는 것은 적다(假借取諸同部者多, 取諸異部者少)"고 하면서 "古假借必同部說"⁶²⁾을 주장했는가하면, 또한 그는 水部 洒字 註에 이르길 "洒와 灑는 본래 다른 뜻이었지만 雙聲이므로 서로 假借한다. 무릇 假借에는 疊韻 혹은 雙聲이 많다"⁶³⁾고 했다. 段氏는 假借同部說을 주장함과 아울러 假借는 雙聲 혹은 疊韻으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9) "古六書，假借以音爲主，同音相代也。轉注以義爲主，同義互訓也。作字之始，有音而後有字。義不外乎音，故轉注亦主音。假借取諸同部者多，取諸異部者少。轉注取諸同部異部者各半。" —— 段玉裁, 《說文解字注》, <六書音均表三>, 古異部假借轉注說, 大星文化社, 1990, p832
- 60) 錢超塵, 《中醫古籍訓詁研究》, 貴州人民出版社, p269, 再引用

- 61) "假借之例四，有同音者，如德之爲惠，疊韻者，如冰之爲捌，馮之爲漚，有雙聲者，如利之爲賴，答之爲對。有合音者，如荒蔚爲，蒺藜爲次也)" ——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自序, 假借條, 中華書局, 1982 p3
- 62) 段玉裁, 《說文解字注》, 六書音均表一, 古假借必同部說, 大星文化社, 1990, p817
- 63) "洒灑本殊義而雙聲，故相假借。凡假借多疊韻或雙聲也" —— 上揭書, 彳部 '洒'字條, p563

訓詁의 핵심은 聲音이다. 訓詁와 聲音은 表裏의 관계를 이룬다. 音이 있고 나서 뜻이 있었으니, 音과 뜻은 별개가 아니라 音을 통해 뜻을 실어 나타냈다. 九經과 諸子百家書 모두 音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聲音현상은 假借와 轉注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중 假借는 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聲音에서 假借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즉 訓詁의 핵심은 聲音이고 聲音은 假借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訓詁의 중심은 假借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六書의 子法에만 얽매어서는 안 되고 假借字에 있어서 假借字의 裏面에 있는 本字의 뜻을 밝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假借의 방법은 1.同音 2.雙聲 3.疊韻으로 이루어진다는 작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4) 철저한 考證作業 시행 — 言必有據

元簡은 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根據를 제시하여 철저한 考證作業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元簡은 訓詁學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분석 하에 《內經》 經文의 要旨를 명쾌하게 천발하는 成果를 구축해 나간다. 考證作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 以經解經

元簡은 經典의 原文을 이용하여 經典을 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源泉의이면서도 확실한 根據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生氣通天論篇第三> “四維相代”의 註에서 “<痺論>에 ‘尻以代踵，脊以代頭’라 했으니, 四維相代는 이것과 같은 뜻이다(<痺論>云 ‘尻以代踵，脊以代頭’, 四維相代與此同義).”라 하면서 그에 대한 根據로 經文 중에 같은 用例로 쓰인 글자를 들어 傍證하고 있다. ‘四維相代’는 <痺論>의 ‘尻以代踵，脊以代頭’에서의 ‘代’와 그 쓰임이 같다는 것이다. 글자 ‘代’의 用例를 經典 내에서 찾고 있으니 以經解經에 해당한다.

이들은 《內經》의 原文을 이용하여 經典을

풀이하는 방법으로서, 바로 ‘以經解經’인 것이다. ‘以經解經’ 이 방법은 《內經》 전체의 내용을 熟知하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作業 중의 하나이다. 元簡은 《素問識》 여러 곳에 걸쳐 관련된 《內經》 原文을 이용하여 풀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內經》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분석적으로 內容을 整理하고 꿰뚫어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醫理와 訓詁의 결합

(가) 醫理를 바탕으로 한 訓詁—醫書類 活用
元簡은 다음과 같은 醫書를 참고하여 訓詁 및 註釋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傷寒論》을 20여회, 《金匱要略》10여회에 걸쳐 인용하여 《內經》과 仲景의 書를 참고 대조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뜻을 비교해 보는 장을 마련하였고, 《諸病源候論》과 《千金方》40여회, 《難經》, 《聖濟總錄》30여회, 《張氏醫通》20여회, 《外臺秘要方》, 《本草綱目》, 《醫學綱目》, 《本草經》을 10여회 등 病理·鍼灸·方劑·本草書 등을 인용하여 《內經》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 醫書의 內容을 《內經》에 결합시킴으로써 《內經》을 실제 臨床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醫學이 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그의 醫學에 대한 實踐의 자세를 나타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元簡은 또한 乾隆시기 漢學派 중 惠棟을 우두머리로 하는 吳派⁶⁴⁾의 일원인 沈彤의 《釋骨》을 7차례에 걸쳐 인용해서 의문나거나 어려운 것을 풀어나갔다.⁶⁵⁾ 吳派인 沈彤의 《釋骨》을 숙지하여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4) 惠棟이 江蘇省 吳縣人으로 그곳을 거점으로 學問活動을 함으로 해서 붙여진 이름의 學派임.

65) 그 한 예로 元簡은 刺腰痛篇第四十一 “成骨”의 註에서 “沈氏의 《釋骨》에 이르기를 ‘膝之上下內外，皆以腋爲斷。成骨之旁 衛骨之端，不至上旁膝，膝乃衛之訛也，此說有理’라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

(나) 訓詁를 바탕으로 한 글자풀이

元簡이 글자를 풀이하는 訓詁 工具書로서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글자풀이의 專門書인 字典類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전 先秦 經史 諸子百家들의 註釋을 글자풀이의 工具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① 字典類 활용

元簡은 小學에 익숙했고, 訓詁學 著作중의 醫籍에 대한 專論 중에 이들을 능숙하게 운용하여 신빙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그는 여러 字典類를 활용하여 글자를 풀이하고 있다. 그가 사용한 字典類는 다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字義 · 字形 · 字音書이다. 글자를 풀이함에 있어서 小學에 대한 지식과 여러 字典類의 工具書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元簡은 30여 種에 해당하는 字典類의 工具書를 활용하여 글자를 풀이하고 있다.

字形書로는 《說文》이 104여회로 가장 많이 활용된 字書이고 《玉篇》은 20여회에 걸쳐 인용되었다. 字音書로는 《熊音》이 50여회로 가장 많고, 《廣韻》, 《集韻》이 10여회이고, 《釋音》, 《韻會》, 《音釋》 등으로 내려간다. 字義書로는 《釋名》, 《爾雅》, 《廣雅》, 《通雅》가 10여회, 《字彙》 등이 이용되었다. 총 32 種의 工具書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古代典籍을 訓詁하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必須 工具書들인 것이다.

② 註釋書 활용

또 다른 하나는 古註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訓詁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 註釋書는 비록 專門的으로 訓詁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매우 풍부한 訓詁資料들이 담겨있으니, 古代의 訓詁들은 古註중에서 歸納해 낸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元簡은 60여 種의 註釋書를 이용하여 글자 풀이를 진행해 나갔다.

(3) 《內經》과 同時代의 經史諸子百家

書에서 《內經》 字句와 같은 用例로 쓰인 것을 들어 傍證을 취함.

《內經》과 同時代의 經史諸子百家書에서 《內經》 字句와 같은 用例로 쓰인 것을 들어 傍證을 취하고 있다. 訓詁學의 핵심은 한마디로 글자를 풀이하는 것이니, 같은 用例로 쓰여진 글자를 찾아내는 일이 주 임무이다. 古代典籍 중 《內經》에서 쓰여진 用例와 같은 글을 찾아낸다는 것은 드넓은 백사장에 숨겨진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힘든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經史子集을 망라한 폭넓은 讀書의 바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書名	註	書名	註
說文	徐鍇註	傷寒論	程應旂註
	孫愐註	左傳	杜豫註
史記	安師古註	周易	鄭玄註
	襄駟註	本草經	羅願註
	張守節註	荀子	楊倞註
	司馬貞註	前漢書	安師古註
漢書	孟康註	孔子家語	王肅註
	安師古註	七發	李善註
	如淳註	呂覽	高誘註
禮記	孔穎達疏	孟子	趙岐註
	孔穎達疏		孔安國註
	鄭玄註		朱子註
難經	虞庶註	論語	何註
	楊玄探註		皇棟
	呂廣註	山海經	郭璞註
	丁德用註	文選	李善註
詩經	毛傳	經典釋文	李願
	孔穎達疏	後漢書	唐章懷太子賢註
	都人士箋	曲禮	鄭玄註
	鄭玄註	楚辭	王逸註
莊子	司馬註	列子	張湛註
尚書	孔安國傳	急就章	安師古註
	賈公彥疏	易緯通卦驗	鄭玄註
	孔子傳	穀梁傳	范甯註
	鄭玄註	海賦	李善註
淮南子	高誘註	樂記	鄭玄註
周禮	賈公彥疏	穆天子傳	郭璞註
	鄭玄註	毛傳	孔穎達疏
爾雅	郭璞註	東京賦	薛綜註
傷寒論	成無己註		

그가 사용한 책은 다음과 같다. 《史記》40여회, 《漢書》30여회, 《左傳》10여회로 많고 《前漢書》, 《春秋繁露》, 《後漢書》, 《國語》, 《穀梁傳》 등 歷史書에서 인용하였으니, 이를 통해 元簡의 바탕공부가 歷史書에 두루 미쳤음을 알 수 있다.

《禮記》30여회, 《尙書》20여회, 《周禮》, 《周易》10여회 등의 순이고, 《儀禮》, 《曲禮》, 《禮記月令正義》, 《大戴禮》, 《論語》, 《孟子》, 《孔子家語》 등에 걸친 儒學經典에 걸쳐 폭넓게 참조 인용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元簡이 儒學經典에 깊은 바탕공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莊子》20여회, 《淮南子》10여회와 《荀子》, 《老子》, 《子華子》, 《列子》, 《管子》, 《關尹子》, 《韓非子》 등 諸子百家書에 걸쳐 폭넓게 참조 인용하고 있으니, 이 또한 元簡이 諸子百家書에서도 폭넓은 바탕공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一切經音義》와 같은 불교용어에 대한 音義書에서도 1여차례나 인용을 하였으니, 宗教의 제한을 떠나 폭넓은 工具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五行大義》20여회로 가장 많고, 《白虎通》10여회, 《文選》, 《山海經》, 《論衡》, 《呂覽》, 《七發》, 《經典釋文》, 《漢詩外傳》, 《敬齋古今注》, 《說苑》, 《急就章》, 《楚辭》, 《蘇頌圖經》, 《新書》, 《顏氏家訓》, 《易緯通卦驗》, 《全國策》 등 다양한 책과 張兆璜의 글을 10회 걸쳐 인용하는 등 방대한 考證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元簡이 위에 나오는 모든 책을 일일이 모두 찾아서 활용한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약간의 疑問을 제기해 볼 수 가 있다. 煙海와 같이 방대한 文獻典籍 중에서, 그에 맞는 用例의 글귀를 찾아내는 것은 힘들고도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元簡은 出典의 모든 根據를 일일이 책을 읽고 뒤져가면서 찾아내는 수고를 덜기 위해 1차 기초 검색자료로 《康熙字典》이나 《太平御覽》이나 이를 증보하여 만든 《

淵鑿類函》과 같은 綜合物類書에 해당하는 工具書를 사용했을 可能性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元簡이 살았을 당시 가장 유행하고 普遍化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글자 책이 바로 무엇일 까를 생각해 보면, 時期的으로 元簡이 살았던 시대는 淸 乾隆嘉慶의 시대에 해당하는데, 그 시대에 나온 字典類種에 가장 물망에 오르는 것이 《康熙字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素問識》중 元簡이 인용한 註釋內容과 《康熙字典》內容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康熙字典》을 주로 사용한 흔적이 여러 곳에 발견되고 있다. 訓詁는 經文 內容과 一致하거나 通用하는 用例를 적절하게 발해하느냐가 관건인데, 元簡은 일차적으로 《康熙字典》을 통해 글자의 用例를 추적해 들어갔다는 端緒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⁶⁶⁾

이상을 통해 元簡은 일차적으로 字書인 《康熙字典》을 참고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거기서 모자라는 내용은 추가로 인용한 出典의 原文을 추적하여 보충해 넣었음을 알 수 있다. 字典의 내용을 일부 요약하거나 핵심만을 따거나 出典의 原文 내용을 확인하여 《康熙》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인용하고 있다.

(가) 傍證을 취함에 있어서는 두 개 이상의 用例를 들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信賴感을 줄 수 있도록 함.

위의 글 <平人氣象論篇 第十八>의 “其動

66) ① <生氣通天論篇第三> “洞泄”의 註文 ② <上古天真論篇第一> “辨列星辰”의 注文인 ③ <上古天真論篇第一> “皆度百歲” ④ <上古天真論篇第一> “頽白”의 註文 ⑤ <五藏別論篇第十一> “魄門”의 註 “ ⑥ <生氣通天論篇第三> “汨汨乎”의 註 ⑦ <宣明五氣篇第二十三> “陽入之陰則靜”의 “之”에 대한 풀이는 《康熙字典》 “之”字條 “又變也。易傳，辭也者 各指其所之，孫奕《示兒編》，之字訓變。《左傳》遇觀之否，言觀變爲否也”라 한 것을 참고로 한 것이다. ⑧ <大奇論篇第四十八> “脈至如喘”중의 “如”字에 대한 註

應衣, 脈宗氣也”에 대한 註에서 그는 《孝經》의 ‘宗祀’에 대한 풀이를 들어 1차 傍證을 취하고 있다. 이어 2차 傍證으로 “王冰도 ‘宗’은 尊이라 했다(王云 宗尊也)”고 하는 말로써 그 뜻을 확고하게 규정짓고 있다. 이는 또한 이전의 여러 註 중 옳다고 생각되는 王 註를 받아들여 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傍證을 취함에 있어서는 두 개 이상의 用例를 들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信賴感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讀者로 하여금 한 치라도 이의를 제기할 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완벽에 가까운 實證主義的 思考를 말해준다. 訓詁는 철저한 考證精神의 발로이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나) 引用 자료의 正確性 및 適合性 여부

考證을 위한 傍證을 취함에 있어 그 引用原文의 根據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引用을 함에 있어서 그 引用文의 用例가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適合한 소재인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訓詁에 있어서의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일 것이다. 물론 元簡은 많은 곳에 걸쳐 考證을 위한 傍證을 취함에 있어 놀라운 정도로 正確性 및 適合性을 기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옥의 티라고 할까 元簡이 그중 잘못 인용하여 풀이한 예 하나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 잘못 인용한 사례—斷章取義의 오류

<評熱病論篇第三十三> “面附瘵然壅”의 註에서 元簡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簡) ○吳崑이르길 “附”는 腫(부어오름)이다.”라 했고, ○張介賓 이르길 “附는 浮腫이고, 瘵然은 얼굴색을 잃은 모습(失色貌)이다”라 했다. 志·高는 함께 腫貌라고 했다(吳云, 附, 腫也. 張云, 附, 浮腫也, 瘵然 失色貌. 志·高并云, 腫貌.)

簡按) “《山海經》에 ‘竹山에 풀이 있는데, 그 이름이 黃蘗(황관)이며, 그것으로 몸을 씻으면 가려움증을 낫게 하고, 또 浮腫을 멈추게 할 수 있다(浴之已疥, 又可已附).’고 했는데, 郭璞이 注하기를 ‘附’는 부어오름(腫)이다”라고

했으니, 吳崑과 張介賓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다(簡按《山海經》 ‘竹山有草焉, 其名曰黃蘗, 浴之已疥, 又可以已附. 郭璞注云, 附腫也. 可以證吳張之言矣).

元簡은 ‘附’자에 대한 풀이로 여러 註중 吳崑과 張介賓의 註를 받아들여 浮腫이라 하면서 자신의 意見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傍證으로 《山海經》의 글을 인용하여 ‘附’는 부어오름(腫)임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서 元簡이 인용한 《山海經》의 내용은 《康熙字典》을 보고 옮겨 쓴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康熙字典》을 옮겨 적는 과정에 글자를 빠뜨리는 오류를 범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元簡이 原典 《山海經》을 인용하지 않고 《康熙字典》에 의거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元簡의 引用文이 《康熙字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山海經》 原文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글을 비교해 살펴보자.

出典	原文
《山海經》	又西五十二里曰竹山, 其上多喬木, 其陰多鐵, 有草焉. 其名曰黃蘗, 其狀如樗, 其葉如麻, 白華而赤實, 其狀如赭, 浴之已疥, 又可以已附治附腫也.
《康熙字典》	《山海經》竹山有草焉, 其名曰黃蘗, 浴之已疥, 又可以已附, 註治附腫也
丹波元簡	《山海經》竹山有草焉, 其名曰黃蘗, 浴之已疥, 又可以已附, 郭璞註附腫也

① 우선 《康熙字典》에서는 《山海經》 原(文67) 중에서 많은 내용을 생략하여 기록하고

67) “又西五十二里曰竹山, 其上多喬木, 郭曰枝上鍊者音橋 其陰多鐵, 有草焉. 其名曰黃蘗, 其狀如樗, 其葉如麻, 白華而赤實, 其狀如赭, 郭曰紫赤色 浴之已疥, 又可以已附. 郭曰治附腫也. 音符” —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上海涵分樓藏

있다. 우선 《山海經》중의 “竹山，其上多喬木，其陰多鐵，有草焉”을 “竹山有草焉”이라 줄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이어진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元簡의 기록도 “竹山有草焉”이라 하여 《康熙字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元簡도 그대로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元簡은 《山海經》의 내용을 直接 인용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康熙字典》의 내용을 間接적으로 인용한 것일 수 있다. 元簡은 직접 그 原典의 내용을 일일이 찾아서 인용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 많은 典籍의 내용 중에서 같은 글자의 用例를 찾는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元簡은 1차 기초 검색자료로 《康熙字典》과 같이 綜合物類書에 해당하는 字典類를 工具書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한 端緒를 발견하게 된다.

② 다음으로 《山海經》중의 “其名曰，黃蓐，其狀如樗，其葉如麻，白華而赤實，其狀如楮，浴之已疥，又可以已疔”을 “其名曰黃蓐，浴之已疥，又可以已疔”이라 줄였는데, 그 줄인 내용을 元簡도 또한 똑같이 이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康熙字典》에서는 郭璞이 註한 《山海經》原文 밑에 작은 글씨로 附記되어 있는 註文인 “治疔腫也”를 인용하면서 “註治疔腫也”라 하여 “治疔腫也”가 註文임을 밝히고 있다. 元簡은 《康熙字典》의 “註治疔腫也”에서 ‘治’를 빼고 “註疔腫也”라 적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元簡이 《康熙字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元簡이 《山海經》의 原文을 직접 확인해 보고 인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단지 그가 《康熙字典》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되겠다는 學

者的 양심 때문인지, 《山海經》 註를 단 사람이 郭璞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명기하여 《康熙字典》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옮겨 적는 과정에서 《康熙字典》의 인용 마지막 부분의 “註治疔腫也”에서 ‘治’자를 빠뜨리고 “郭璞註，疔，腫也”로 적는다.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元簡이 《山海經》을 인용한 意圖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쓰인 것인가라는 점이다. 元簡은 《素問識》의 본 註文 중 ‘疔’에 대한 풀이를 함께 있어서, 이전에 吳崑과 張介賓이 ‘疔’는 ‘腫’이며 ‘浮腫’이라고 한 말을 끌어다 자신의 생각을 대신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이 말한 것 중 吳崑이 말한 “疔，腫也”라는 말을 입증하기 위한 用例로 바로 《山海經》의 註文을 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이 原註文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에 유리한 쪽으로 斷章取義하는愚를 범하는 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治疔腫也”에서 “疔，腫也”라는 구절만 元簡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山海經》의 原文에서 “(黃蓐은) 疔腫⁶⁸⁾을 치료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내용을 ‘疔은 腫함이다’라는 뜻으로 따다 쓴다면,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經文에 訓詁作業의 일환으로 어떤 글자의 用例를 들음에 있어서 그 引用하는 原文의 본 뜻을 도외시키고 註釋者의 의도에 맞는 대로 필요한 글귀만을 따다 잘못된 방증의 근거로 사용하여 쓴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學問의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訓詁에 있어서의 生命은 정확한 引用과 아울러 인용한 用例가 經文의 내용에 適合한지의 與否가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위낙 방대한 考證作業을 하다보니 작은 실수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이 보인다.

本, 電子版, 人民衛生出版社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년판, 子部十二, 小說家類二, 異聞之屬, 《山海經廣注》 卷二, 《西山經》, 仁和吳任臣注

68) ‘疔腫’은 ‘浮腫’과 통용한다. <水熱穴論>에 “(水氣가) 위아래로 皮膚에 흘러 넘치므로 疔腫이 된다.”고 하여 ‘浮腫’의 ‘浮’자를 ‘疔’字로 쓰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4. 訓詁學的 成果 考察

본 章에서는 丹波元簡이 《素問》을 풀이함에 있어 訓詁學의 方法論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사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內經》의 難解한 句의 뜻을 闡發하는 데에 기여한 成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앞 3장에서 보았듯이 訓詁의 핵심은 聲音이요, 通假字의 운용에 있음을 알았다.

元簡은 訓詁를 진행함에 있어 '古通用'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면서 옛날에 통용했던 글자의 用例를 드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이전의 注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古通用'의 事例를 찾아내어 《內經》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고, 後代 訓詁學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는 經文의 글자 用例와 같은 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데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이는 어려서부터 깊이 있고 폭넓은 基礎學問의 바탕이 있었고 거기에 다 博覽彙記하는 타고난 聰敏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通假字는 古代音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음이 同音인지 아니면 類似音인지를 살펴 서로 通用하여 쓰는 用法이다. 古書를 解讀함에 해석이 잘 안되고 막히는 곳을 만났을 때, 종종 通假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問題가 얼음 녹듯이 풀리면서 그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通假를 함에 있어서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假字를 破하고 本字의 뜻을 살려 해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音의 관계가 同音 또는 類似音이라고 해서 아무것이나 임의로 通用해서 쓸 수 없다는 점이다. 通假字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古代에 사용한 用例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는 《素問識》 여러 곳에 걸쳐 通假字를 이용하여 풀이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앞에서 朱·段氏가 말한 同音·雙聲·疊韻法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

시 말해 元簡이 사용한 通假字의 用法이 同音·雙聲·疊韻法에 비추어 보아 거기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元簡의 通假字 用法의 운용이 얼마나 信憑性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訓詁學에 있어서 중요한 觀點의 하나임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古韻學家들은 《詩經》의 韻脚과 諧聲의 체계를 근거로 해서 先秦 때의 古韻의 韻部를 작성하게 된다. 清代의 顧炎武를 시작으로 古韻의 분류는 점차 보충 및 수정과정의 통해 여러 변화를 거쳐 오면서 王力에 이르러서는 古韻의 분류가 더욱 세밀해지고 정교함을 갖추게 된다.⁶⁹⁾ 本稿에서 다루는 韻部는 王力の 二十九部에 一部를 더 첨가하여 만든 三十部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1) 音似字

元簡은 《素問識》 전편에 걸쳐 難解한 《內經》 글귀에 대해 通假字를 이용하여 이전의 註釋家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명쾌한 풀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본 節에서는 3章 다. '通假字 활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元簡이 訓詁學의 通假字를 활용하여 《素問》의 醫學 專門用語 및 難解한 글귀를 해독하는 큰 成果를 이루었는데, 그 成果 중 대표적인 몇 개의 사례를 뽑아 分析考察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方法論으로는 朱駿聲·段玉裁가 말한 同音·雙聲·疊韻法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元簡이 사용한 通假字의 用法이 同音·雙聲·疊韻法에 비추어 보아 거기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元簡

69) “顧炎武 十部, 江永 十三部, 戴震 二十五部, 段玉裁 十七部, 江有誥 二十一部, 章炳麟 二十三部(晩년에 二十二部로 고침), 江有誥 二十一部, 王力 二十九部 등이 있음” — 朴贊國·尹暢烈編著, 《醫學漢文》, 成輔社, 2002 p177

의 通假字 用法의 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이 訓詁學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의 하나임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그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古音 分類方法인 韻, 紐, 部를 살펴 同音·雙聲·疊韻⁷⁰⁾의 여부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稿에서는 漢字의 聲紐와 韻部를 살피에 있어 胡北辭書出版社와 四川辭書出版社에서 간행한 《漢字大字典》의 분류 체계를 따라 글자를 분류해 나가기로 한다.

音似字는 同音 또는 類似音を 빌려 쓰는 것이다.

앞으로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호를 바탕으로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일러두기>

[] : 元簡이 주석의 대상으로 삼은 《素問》의 經文

簡) : 丹波元簡이 직접 한 말이거나 인용한 말

簡按) : 丹波元簡의 생각이나 고찰

○ : 丹波元簡이 인용한 글이나 주석

析) : 논자의 분석

☞ : 通假字 분석

愚按) : 논자의 생각

[愚者佩之] — 四氣調神大論篇第二

簡)①○李治 《敬齋古今註》云 “王注에 ‘聖人의 마음은 道에 합하므로 부지런히 道를 행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迷惑한 것을 지키므로 佩服할 따름이다.’라 했으나, 王冰의 說은 그르다. 佩는 背(어김)이니, 古字에서는 通用했다. 과연 능히 道를 佩服(패물을

패용하고 다니듯이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종하여 따름)할 수 있다면 이것 역시 聖人의 무리인 것이니, 어찌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 했다(李治《古今註》云 “王注, 聖人心合于道, 故勤而行之. 愚者性守于迷, 故佩服而已. 冰說非也. 佩背也. 古字通用. 果能佩服於道, 是亦聖人之道也. 安得謂之愚哉).

②○滑壽도 “佩는 응당 悖(어길 패)로 적어야 한다(滑云, 佩當作悖)”했고, ○吳崑도 “佩는 悖와 같으니 옛날에는 通用했다(吳云, 佩與悖同. 古通用)”하고 있다.

簡按) 《敬齋古今註》의 說이 옳다(古今註之說是)

析)佩—背, 悖 : 倍(佩는 背, 悖와 통용하며 뜻은 倍이니 어김의 뜻이다)

元簡은 ①李治 《敬齋古今註》의 말을 빌어 자신의 입장을 대신하고 있다. 李治는 佩와 背를 古字에서는 通用했음을 말하고, 王冰이 佩服이라고 한 것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②아울러 滑壽와 吳崑의 말을 빌어 옛날에 佩는 또한 悖와 같이 通用해 썼음을 말하고 있다. 즉 佩는 背 또는 悖와 통용함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 ‘佩’와 ‘背’와 ‘悖’는 모두 去聲 隊韻에 속하니 모두 同韻으로 疊韻을 이루고, 並紐와 幫紐는 모두 唇音이므로 雙聲을 이루니 通用할 수 있다.

字	半切	韻	紐	部	訓
佩	《廣韻》	去聲	並	之	背, 悖
	浦味切	隊韻			
背	《廣韻》	去聲	幫	之	어기다
	浦味切	隊韻			
悖	《廣韻》	去聲	並	微	어기다
	浦味切	隊韻			

佩는 假字이니 破하고 本字인 背(어김), 悖(어그림)의 뜻으로 해석한다. 李治와 滑·吳의 通假字用法을 취했다.

愚按) 筆者는 여기서 王冰 注를 바라보는

70) 漢字의 音은 크게 ‘聲’과 ‘韻’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字音의 가장 앞부분인 初聲이 聲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인 中·終聲이 즉 韻에 속한다. 音이 좃아서 발하는 것을 立聲이라 하니 聲만 있고 韻이 없으면 音을 완성할 수 없다. 이 중 두 字가 같은 聲母로 이루어진 것이 雙聲이고 두 字가 같은 韻母로 이루어진 것이 疊韻이다. 여기서 雙聲은 聲紐로 분류되고 疊韻은 韻部로 분류된다. 雙聲疊韻은 六朝時代에 일어났다. 韻에 있어서 같은 韻部에 속하는 글자끼리는 疊韻을 이룬다.

李治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잠시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 王注를 자세히 음미해 보도록 하자. 王冰註에 “聖人の 마음은 道에 합하므로 부지런히 道를 행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迷惑한 것을 지키므로 佩服할 따름이다(聖人心合于道, 故勤而行之. 愚者性守于迷, 故佩服而已)”라고 한 것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聖人	心合于道(마음이 道에 부합한다) ⇒ 故勤而行之(도를 부지런히 힘써 행한다)
愚者	性守于迷(성품이 迷惑한 것을 지킨다) ⇒ 故佩服而已(미혹한 것을 믿고 따를 뿐이다)

王注에서 말한 佩服의 의미는 그 말 앞에 어리석은 자들이 ‘性守于迷(타고난 성품이 미혹한 것을 지킴)’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임을 알아야 한다. 聖인은 마음이 道에 부합하므로 부지런히 힘써 道를 행할 수 있지만, 愚者들은 道에 미혹되어 일의 機微에 따른 變通을 하지 못하고 盲信하고 복종하여 따르기만 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써 말하고 있는 것이다. ‘聖人合道’와 ‘愚者守迷’하는 것을 對照의으로 부각시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王冰註에서 王冰이 말하고자 하는 ‘佩’는 道의 소중함을 알았지 道에 迷惑되어 일의 機微에 따른 變通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盲信하고 복종하여 따르기만 한다는 否定的 의미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李治는 王冰이 말한 ‘佩服’을 긍정적인 의미인 ‘道를 그대로 잘 믿고 따른다’라는 뜻으로 바라보고 있다. 道를 그대로 잘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聖人の 경지가 아니겠는가라는 反問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李治가 王冰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의 뜻은 작자가 어떤 의도로 사

용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李治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을 읽었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斷章取義하는 累를 범하고 있다 하겠다.

王冰의 註도 《內經》本義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王冰의 풀이는 轉注의 原理로 글자를 풀이하고 있다고 본다. ‘佩’의 본래의 뜻은 패물 따위를 ‘몸에 지니고 다니다’ ‘차다’의 뜻이었으나 이것이 轉用되어 ‘맹종하여 따르다’라는 뜻으로 확대 부연하여 쓸 수 있었던 것이다.

[潰潰乎若壞都] — 生氣通天論篇 第三

①○馬蒔 이르길 “都是 물을 막아 가두는 것이다(都所以坊水⁷¹⁾)”

簡按) ②《禮記·檀弓》에 ‘滄其宮而豬焉(그 궁에 구덩이를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다)’에 대한 鄭玄의 註에 ‘豬는 都이다. 南人들은 都를 일러 豬라한다’고 했다. ③ 鄭道元의 《水經注》에 “물이 연못에 모여 있는 것을 都라하고 역시 滄라 한다(水澤所聚, 謂之都. 亦曰滄).” ④ 張과 高가 都城의 都라고 한 것은 틀리다(張高爲都城之都, 誤).

析) 都—豬, 滄: 坊水, 水澤所聚, 堤防(都是 豬, 滄와 통하고, 坊水, 水澤所聚, 堤防의 뜻이다)

‘都’는 물이 모여 있는 ‘滄(웅덩이)’이다. 都是 豬이고 滄이니, 즉 都是 滄이다. ①都是 물을 막는 堤防이다. 여러 주 중 자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馬蒔의 注를 취했다. 그러나 馬蒔는 都가 왜 坊水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馬注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아래에 추가로 注를 더 하였다. ②都是 물을 막아 가두는 堤防이다. 都是 豬와 같음을 《禮記·檀弓》 ‘滄其宮而豬

71) 坊水: 물을 가두어 늪이다. “坊은 물을 막는 堤防이다. 防과 통한다. 《禮記·郊特牲》 ‘祭坊與水庸, 事也.’ 疏에 ‘坊者, 所以畜水, 亦以彰水’” — 《辭源》, 商務印書館香港分店, 1987, p321

焉'에 대한 鄭玄의 註를 인용해 입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것이 南人들에 의해 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③都와 瀦는 통용해 쓴다. 두 번째 증거로 鄺道元の 《水經注》를 인용해 都는 “水澤所聚”이며 또한 ‘瀦’라고도 함을 밝히고 있다. 결국 都는 瀦로도 적었으며 瀦라고도 함을 입증하고 있다. ④張·高的 注는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아래 글에 나오는 ‘汨汨乎’라는 말이 물과 관련된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元簡의 注가 더욱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都는 《廣韻》 當孤切, 平聲 模韻, 端紐, 魚部이고, 瀦는 《廣韻》에 陟魚切이고, 平聲 魚韻, 知紐, 魚部이고, 瀦는 《廣韻》에 陟魚切이고, 平聲 魚韻, 知紐, 魚部이다.

字	半切	韻	紐	部
都	《廣韻》 當孤切	平聲 模	端	魚
瀦	《廣韻》 陟魚切	平聲 魚	知	魚
瀦	《廣韻》 陟魚切	平聲 魚	知	魚

여기서 ‘都’와 ‘瀦’와 ‘瀦’는 모두 魚部に 속하니 이들은 서로 同部로서 疊韻에 해당하고, 端紐와 知紐는 다 같이 舌音에 속하니 雙聲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것이다.

【厥陰⁷²⁾】— 陰陽離合論篇 第六

①○馬蒔 “陰經 중의 陽과 단절된 것이니 絕陽은 純陰이다. 이듬하여 陰중의 絕陰이라 하니 絕陰이란 陰이 다함이다(馬云 乃陰經中之 絕陽, 絕陽者 純陰也. 名曰陰之絕陰, 絕陰者 盡陰也).”

簡按) ①《靈樞·陰陽繫日月》篇에 이르길 “兩陰交盡, 故曰厥陰”이라 했다(《靈繫日月篇

》云 ‘兩陰交盡, 故曰厥陰’.

② 厥은 蹶(탕진할 쉼)로 통하여 적는다. 《漢書 食貨志》에 “天下財產, 何得不蹶”이라 한 것에 대해 師古가 註하기를 “蹶은 盡竭(다함)이다”(《史記·倉公傳》에서는 厥陰을 蹶陰으로 적었다(厥 通作蹶 《漢 食貨志》 ‘天下財產, 何得不蹶’ 師古註 蹶 盡竭也史記倉公傳 厥陰作蹶陰.) ③또 《晏子春秋》에 “陰冰厥陽, 冰厚五寸”이라 했다(《晏子春秋》云 “陰冰厥陽, 冰厚五寸”). ④모두 王 注를 증빙해주는 것을 도와 주고 있다. ‘陰之絕陽’ 녀 字는 없애야 한다(並爲王註之佐證矣. 除刪陰之絕陽 四字).

析) 厥—蹶 : 盡, 竭(厥은 蹶과 통하니 ‘다하다’는 뜻이다).

①여러 注 중 馬注를 받아들여 열거하고 있다. 馬注와 《靈樞·陰陽繫日月》篇의 “兩陰交盡, 故曰厥陰”이라는 經文을 들어 厥陰의 厥이 盡(다함)의 뜻이 있음을 1차 입증하고 있다. 以經解經에 해당한다. ②厥과 蹶이 통하여 적으며, 盡竭의 뜻을 《漢書·食貨志》 “天下財產, 何得不蹶”의 師古 註를 들어 재차 입증하고 있다. ③또 《晏子春秋》의 “陰冰厥陽”을 들어 厥이 厥陰 뿐만 아니라 陽의 多少를 나타내는 厥陽(다한 陽)으로도 쓰였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뜻 역시 ‘다함’의 뜻으로 쓰였음을 들고 있다. ④본 注의 근간은 王冰 註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字	半切	韻	紐	部
厥	《廣韻》 居月切	入聲 月	見	月
蹶	위	와	갈	음

☞ ‘厥’은 ‘蹶’이니 즉 盡(다함)이다. ‘厥’과 ‘蹶’은 모두 《廣韻》에 居月の 半切이고, 入聲 月韻 見紐 月部에 속하니, 同音으로 옛날에 통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同音假借에 해당함. 《史記·扁鵲倉公列傳》에서 ‘厥陰’을 ‘蹶陰’으로 적었다는 용례⁷³⁾는 ‘厥’과 ‘蹶’이 통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

72) “厥陰根起於大敦, 陰之絕陽, 名曰陰之絕陰” — <陰陽離合論篇第六>

《史記·扁鵲倉公列傳》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볼 것 같으면 또한 ‘厥’자는 ‘厥陰’에서만 한정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熱厥’을 말할 때도 역시 熱厥로 적고 있다.⁷⁴⁾ 이것을 보면 당시에 厥과 厥이 통용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어서 ‘厥’이 盡의 뜻으로 쓰인 用例로 든 《漢書 食貨志》와 《晏子春秋》의 例文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顏疝]⁷⁵⁾ — 陰陽別論篇 第七

①○馬蒔 “癩와 같다(馬云, 與癩同).”

簡按) ②癩와 癩는 같다. ③본래 隤(무너뜨릴 퇴)로 적는다. 《詩·周南》에 “我馬虺隤”라 했고, 《爾雅》에는 虺隤로 적었다. ④《釋名》에 이르길 “陰腫(음낭이 부어오름)을 隤라 하는데, 氣가 아래로 쳐져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또 말하길 ‘疝’은 洗(말을, 모일 선)을 말한다. 洗洗然(몽치듯)하게 小腹을 당기면서 急痛함이다”라 했다. 바로 <經脈篇>의 疝疝과 <脈解篇>의 疝과 <五色篇>의 癩陰이 모두 같다. ⑤《一切經音義》에 이르길 “丸顏(고환이 쳐져내리는 것)는 또 ■로 적기도 하는데 陰病이다”라 했고, <原病式>에 이르길 “癩疝은 小腹이 알을 당기면서 부어오르고, 급하게 絞痛(뒤틀리는 통증)한다”고 했다. ○朱震亨이 이르길 “癩疝은 그 모양이 陰囊이 부어올라 매달려 늘어지는 것(腫總중추)이 크기가 마치 되나 말과 같으며,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다”고

했는데 옳다(簡按, 癩疝同. 本作隤. 詩周南, 我馬虺隤, 爾雅作虺隤. 釋名云, 陰腫曰隤, 氣下隤也. 又曰 疝言洗也. 洗洗然引小腹急痛也. 乃經脈篇癩疝, 脈解篇疝, 五色篇癩陰, 並同. 一切經音義云, 丸顏, 又作■, 陰病也. 原病式云, 癩疝, 小腹控卵腫, 急絞痛也. 朱震亨云, 癩疝, 其形, 陰囊腫總, 如升如斗, 不痒不痛, 是也). ⑥○吳崑이르길 “顏는 頑이다. 顏疝은 腎丸이 커지면서 아프지는 않고, 완전히 해롭지 않은 것이다(吳云 顏頑也 顏疝 腎丸大而痛 頑然不害者也).” 簡) 顏는 陰(떨어질 추)이다. 지금 頑으로 풀이하는 것은 근거하는 바를 보지 못했다(顏陰也. 今訓頑未見所據).

析) 顏—癩, 疝, 隤(顏는 癩, 疝, 隤와 통용하며, 뜻이 무너지다(隤), 떨어지다, 陰腫, 陰病의 뜻을 나타낸다)

①여러 註中 馬注를 받아들여 ‘顏’와 ‘癩’는 같음을 말하였다. ②이어서 元簡은 ‘癩’와 ‘疝’는 같다고 하였다. ‘顏’는 ‘癩’와 같고 ‘癩’는 다시 ‘疝’와 같으니 결국 ‘顏’는 ‘疝’와 같다는 결과가 된다. ③아울러 ‘疝’는 본래 ‘隤’로 적음을 말하고 그에 대한 용례로 《詩·周南》의 ‘虺隤’를 들고 있다. 또한 《詩·周南》의 ‘虺隤’와 《爾雅》의 ‘虺隤’를 예로 들어 ‘顏’와 ‘隤’가 예로부터 통용하여 쓰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④《釋名》을 통해 ‘隤’는 陰腫임을 밝히고 이것의 病理機轉은 ‘氣下隤’함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⑤《一切經音義》, 《原病式》, 朱震亨 등의 말을 빌어 癩의 病證에 대해 개괄적으로 나열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⑥吳崑이 ‘頑’이라고 풀이하는 것은 ‘陰한다’는 뜻과 멀다는 것을 말하여 바로 잡고 있다.

73) 실제로 《史記·扁鵲倉公列傳》의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丹波씨의 말대로 ‘厥’을 ‘厥’로 적은 사실이 맞다. 다음은 그 原文의 일부를 발췌해 본 것이다. “所以知出于病者, 切其脈大而實, 其來難, 是厥陰之動也. 脈來難者, 疝氣之客于膀胱也. 腹之所以腫者, 言厥陰之絡結小腹也. 厥陰有過則脈結動, 動則腹腫. 臣意即灸其足厥陰之脈, 左右各一所, 即不遺溺而溲清, 小腹痛止. 即更爲火齊湯以飲之, 三日而疝氣散, 即愈.”

74) “故濟北王阿母, 自言足熱而癩. 臣意告曰 “熱癩也.” 則刺其足心各三所, 案之無出血, 病旋已.” — 上揭書 같은 곳

75) “三陽爲病, 發寒熱, 其傳爲顏疝” — <陰陽別論篇 第七>

字	半切	韻	紐	部
癩	《廣韻》 杜回切	平聲灰	定	微
疝	《廣韻》 杜回切	平聲灰	定	微
隤	《廣韻》 杜回切	平聲灰	定	微

□ ‘癩’와 ‘疝’와 ‘隤’는 모두 《廣韻》에 杜回

切이고 平聲灰韻이고 定紐 微部에 속하여 同韻, 同紐, 同部이니 同音으로 통용할 수 있다.

‘癩’와 ‘瘡’는 같으며, 본래 ‘瘡’로 적는다고 입증하고 있다. 이전에 쓰여진 말들의 用例를 조사해 봄으로써 글자의 쓰임을 밝히고 있다. ‘癩瘡’, ‘癩癩’, ‘瘡’, ‘瘡瘡’, ‘瘡瘡’, ‘瘡瘡’, ‘瘡瘡’ 등의 말을 통해 이들이 같은 用例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인 것이다. 이에 대한 典據자료로 經文인 <經脈>篇, <脈解>篇, <五色>篇을 위시로 <詩·周南>, <爾雅>, <釋名>, <一切經音義>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原病式>과 朱震亨의 말을 빌어 ‘癩瘡’의 病證은 “小腹이 알을 당기면서 부어오르고, 급하게 絞痛하거나, 그 모양이 陰囊이 부어올라 매달려 늘어지는 것(腫縱종추)이 크기가 마치 되나 말과 같으며,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魄門】— 五藏別論篇 第十一

簡) ①魄은 粕과 통한다. <莊子·天道篇>에 “古人之糟魄已夫”라 했다. ②<音義>에 司馬이르길 ‘爛食(문드러진 음식)’을 魄이라 한다. ③一說에 이르길 糟爛을 魄이라고 한다했으니, 본래 또한 粕으로도 적는다’라 했다. 대개 肛門이 糟粕을 傳送하므로 魄門이라 이름한 것이다. 王註는 아마도 착각된 것이 아닌가 한다 (魄, 粕通. 莊子 天道篇, 古人之糟魄已夫. 音義, 司馬云, 爛食曰魄. 一云 糟爛爲魄. 本又作粕. 蓋肛門傳送糟粕, 故名魄門. 王註恐鑿矣).

析) 魄—粕 : 爛食, 糟爛(魄은 粕과 통하니, 찌꺼기, 爛食, 糟爛의 뜻이다)

①‘魄’은 ‘粕’과 통용하여 씌을 말하고, 그에 대한 用例로 <莊子·天道篇>에 “古人之糟魄已夫”라 한 것에서의 ‘糟魄’을 들어 방증하고 있다. ②아울러 <莊子音義>의 司馬의 말을 빌어 ‘魄’은 ‘爛食(문드러진 음식)’이라 하며 ‘魄’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다. ③또한 一說에 糟爛을 ‘魄’이라고 한다면서 ‘魄’은 본래 또한 ‘粕’으로도 적음을 밝히고 있다. ‘魄門’이라 이

름한 것은 대개 肛門이 糟粕을 傳送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뜻이 분명해진다. ‘魄門’은 곧 ‘粕門’이니, 王註가 잘못 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魄은 <廣韻>에 普伯切이고 入聲 陌韻, 滂紐, 鐸部에 속하고, 粕은 <廣韻>에 匹各切이고 入聲 鐸韻이며 滂紐, 鐸部에 속한다. 魄과 粕은 同紐이자 同部에 속하니 同音으로 서로 통용하여 쓸 수 있다고 본다.

字	半切	韻	紐	部
魄	<廣韻> 普伯切	入聲 陌	滂	鐸
粕	<廣韻> 匹各切	入聲 鐸	滂	鐸

愚按) 元簡이 인용한 글은 <經典釋文>에 실린 <莊子音義>의 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물론 그가 직접 <經典釋文>의 글을 직접 기억으로 되살려 原文을 확인해 보고 인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의 순서상 우선 일차 檢索 道具書로 <康熙字典> 등의 事書類를 이용해 그 근거를 추적해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康熙字典> ‘魄’자 條의 내용도 元簡이 인용한 글과 거의 일치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康熙字典>이 그가 참고한 주요 工具書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康熙字典>의 내용은 原典 그대로이거나, 原典의 내용을 생략하여 줄이거나, 原典을 變形하여 要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元簡은 1차로 <康熙字典>을 참고함에 있어서 <康熙字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康熙字典>의 인용내용 중 일부인 “又作粕”을 “本又作粕”이라 고쳐 적고 있다. 이는 元簡이 1차 근거인 <康熙字典>을 바탕으로 根據가 되는 原文이 陸德明의 <經典釋文>에 실린 <莊子音義>의 글⁷⁶⁾임을 알아내고는 引用原文인 <

76) “魄, 司馬云, 爛食曰魄, 一云糟爛爲魄, 本又作粕”— 欽定四庫全書, 經部七, 五經總義類, <經典釋文>, <莊子音義>, 卷二十七, 天道十三

莊子音義》의 글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고 《康熙字典》에 빠진 내용을 추가로 고쳐 기록한 것일 수 있다. 《康熙字典》에서 말한 “又作粘”의 根源資料를 陸德明의 《經典釋文》에 실린 《莊子音義》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元簡은 《康熙字典》의 내용을 인용함에 있어서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原 出典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인용을 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출전	내 용
元簡	魄粕通《莊子·天道篇》“古人之糟魄已夫”音義, 司馬云 爛食曰魄. 一云 糟爛爲魄. 本又作粘
康熙	與粕同《莊子·天道篇》“古人之糟魄已夫”音義, 司馬云 爛食曰魄. 一云 糟爛爲魄. 又作粘
釋文	《莊子音義》, 司馬云 爛食曰魄, 一云 糟爛爲魄 本又作粘

[厥成爲顛疾] — 脈要精微論篇第十七

①○吳崑 “顛과 顛은 같다. 옛날에 通用했다. 氣가 逆上하는 것이 그치지 않으면 위가 實하고 아래가 허하므로 倏然히 顛仆하게 한다. 지금 세상에 이른바 五癩이라는 것이다(吳云, 顛, 顛同. 古通用. 氣逆上而不已, 則上實而下虛, 故令倏然顛仆. 今世所謂五癩也).” ○張介賓 “혹은 疼痛하고 혹은 眩仆하여 頂顛의 疾을 이룬다 一說에 氣가 逆하면 神이 어지러워져 顛狂病을 앓는다고 하는 것도 역시 통한다 (張云, 或爲疼痛, 或爲眩仆, 而成頂顛之疾也. 一曰氣逆則神亂, 而病爲顛狂者, 亦通).”

簡按) ②楊玄操가 《難經》에 註하여 이르길 “顛은 顛(넘어짐)이다. 發하면 즉시 僵仆(쓰러짐)하여 땅에 거꾸러진다. 그러므로 顛蹶(쓰러져 넘어짐)이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다.” 樓씨 《醫學綱目》에 이르길 “그 病이 頭顛에 있으므로 顛疾이라 한 것이다”라 했다. ③이에 ‘顛癩’의 ‘顛’과 ‘厥成顛疾’과 ‘眩冒顛疾’의 ‘顛’이 하나의 질병임을 알 수 있다. 王太僕이 顛을

잘못 나누어 두 개의 질병이 되었다. 유독 孫眞人이 비로소 하나로 할 수 있었다. 樓氏가 顛·顛을 하나의 질병이라 한 것은 진실로 옳다. 顛을 頭顛의 뜻으로 여기는 것은 좃을 수 없다. <五臟生成篇>에 ‘頭痛顛疾, 下虛上實’이라 했고 <奇病論>에 ‘人生而有病顛疾者’ <方盛衰論> ‘氣上不下, 頭痛顛疾’이라 한 것이 모두 顛疾이니 吳注를 좃아야 한다(楊玄操註難經云, 顛, 顛也. 發即僵仆倒地. 故有顛蹶之言. 樓氏綱目云, 以其病在頭顛, 故曰顛疾. 是知顛癩之顛, 厥成顛疾, 眩冒顛疾之顛, 一疾也. 王太僕誤分顛爲二疾. 獨孫眞人始能一之. 樓以顛癩爲一疾, 固是. 以顛爲頭顛之義, 不可從. 五臟生成篇, ‘頭痛顛疾, 下虛上實’, 奇病論 ‘人生而有病顛疾者’ 方盛衰論 ‘氣上不下, 頭痛顛疾’, 並是顛疾, 當從吳註).

析) 顛—顛, 顛(顛은 顛, 顛과 서로 通用한다. ‘顛’은 ‘顛(넘어짐)’이고 病이 頭顛에 있으므로 顛疾이라 한 것이다.)

①여러 註 중 吳崑과 張介賓의 註를 들어 비교 나열하고 있다. ②‘顛’은 ‘顛’이니, 僵仆(쓰러짐)한다는 뜻이 있음을 楊玄操 《難經》 註의 말을 빌어 말하였고, 아울러 ‘病이 頭顛에 있으므로 顛疾이라 한 것’임을 樓氏 《醫學綱目》의 말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顛’에는 ‘顛(넘어짐)’과 ‘病在頭顛’의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③‘顛癩’의 ‘顛’과 ‘厥成顛疾’·‘眩冒顛疾’의 ‘顛’이 하나이니, 顛·顛은 역시 하나의 질병임을 말하고 있다. 王太僕이 顛을 잘못 두 개의 질병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孫眞人이 비로소 하나로 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樓氏의 말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④‘顛’은 ‘顛’을 말함이지 頭顛(머리꼭대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에 대한 증거로 <五臟生成篇>의 ‘頭痛顛疾, 下虛上實’과 <奇病論>의 ‘人生而有病顛疾者’와 <方盛衰論>의 ‘氣上不下, 頭痛顛疾’이라 한 것에서의 ‘顛’이 모두 ‘顛疾’을 가리키는 것임을 들고 있다. 아울러 ‘顛

과 顛은 같으니 옛날에 通用했다'고 한 吳注를 좇아야 한다 하고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顛'과 '顛'은 같으니 옛날에 通用했다하고 있다. '顛'은 '顛(넘어짐)'이고 病이 頭顛에 있으므로 顛疾이라 한 것이다. '顛'의 '顛'과 '厥成顛疾'과 '眩冒顛疾'의 '顛'이 하나의 질병이다. '顛'과 '顛'은 별 개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病에 대한 다른 명칭일 뿐이라는 것이다. 王太僕이 顛을 잘못 나누어 두 개의 疾病으로 보는 잘못을 지적하고, 顛을 頭顛의 뜻으로 여기는 것은 좇을 수 없다하고 있다.

☞'顛'과 '顛'은 그音が '顛'으로부터 나왔으니 같은 諧聲字이다. 이들의 실제 音을 살펴보자.

顛, 顛, 顛은 모두 《廣韻》에 都年切이고 平聲先韻 端紐 眞部에 속하니 同音으로 서로 通用할 수 있다.

字	半切	韻	紐	部
顛	《廣韻》 都年切	平聲 先	端	眞
顛	《廣韻》 都年切	平聲 先	端	眞
顛	《廣韻》 都年切	平聲 先	端	眞

[如發蒙解惑] — 舉痛論篇 第三十九

簡按) ①'蒙'과 '蒙'(칭매나 뭉)은 같다. 《靈樞一刺節眞邪論》에 '二曰發蒙'이라 했고, 《禮記·仲尼燕居》에 '昭然若發蒙矣(환하게 장님이 눈을 뜬 것과 같았다)'고 했으며, 東方朔《七諫》에 '幸君之發蒙(바라옵건대 군께서 눈을 뜨시옵소서)'라 했고, 《漢書·揚雄傳》에 '發蒙廓然(눈을 뜬 것이 탁 트이는 듯했다)'이라 했고, <寶融傳>에 '밝은 것이 發蒙하는 것과 같다'라 했고, 晉 顧愷之는 《啓蒙記》를 지었고, 朱子の 《易學啓蒙》이 있다. ②《詩經·毛傳》에 '눈동자는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을 蒙이라고 한다'고 했고, 王充《論衡》에 이르길, "사람이 學問하지 않을 것을 蒙이라고 하는데, 蒙한 자는 대나무와 같은 무리이다"라 했으니, 모두가 증명할 수 있다. 王氏의 注는 允當하지 못하다(簡按 蒙蒙同.刺節眞邪論, '二

曰發蒙' 禮記 仲尼燕居, '昭然若發蒙矣' 又東方朔七諫, 幸君之發蒙, 漢 揚雄傳 '發蒙廓然' 寶融傳 曠若發蒙 晉 顧愷之作啓蒙記, 朱子有易學啓蒙, 詩毛傳 '有眸子而無見曰蒙' 王充 論衡云, '人未學問曰蒙. 蒙者, 竹木之類也.' 並可以證. 王注未允.)"

析) 蒙—蒙(蒙은 蒙과 통하며, 눈이 안 보인다는 뜻이다.)

①蒙과 蒙은 같은 글자로서 이전에는 通用하여 썼음을 말하고, 그 예로 《靈樞一刺節眞邪論》, 《禮記》, 東方朔《七諫》, 《漢書·揚雄傳》·<寶融傳>을 통해 '發蒙'으로 쓰여진 用例가 많았음을 들고 있다. 아울러 晉 顧愷之의 《啓蒙記》와 朱子の 《易學啓蒙》을 통해 '蒙'과 蒙이 通用해 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이어서 《詩經·毛傳》과 王充《論衡》의 말을 빌어 '蒙'字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다. 蒙의 원래 뜻은 '눈동자는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였을 것이나, 그것이 전용되어 '사람이 學問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王氏의 注에 '如發開童蒙之耳(어린이의 귀를 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은 允當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蒙'의 聲符는 蒙으로 '蒙'과 '蒙'은 諧聲을 이루어 音이 같으니 通用할 수 있다. '蒙'은 《廣韻》에 莫紅切이라 했고, 그 韻이 平聲 東韻이고, 明紐이자 東部에 속한다. 蒙자도 蒙과 音이 동일하니, 通用하여 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字	半切	韻	紐	部
蒙	《廣韻》 莫紅切	平聲 東	明	東
蒙	위 와 같 음			

愚按) '發蒙'은 원래 '보이지 않던 눈을 뜨게 해준다'는 뜻이었다. 그러던 것이 學問하지 않은 어리석음이나, '蒙昧함을 깨우쳐준다'는 뜻으로 전용되어 쓰이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發

蒙은 啓蒙과 같은 뜻으로 학문의 蒙昧함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흔히 쓰이는 말이다. 朱子의 《易學啓蒙》이나 李珣의 《擊蒙要訣》등과 같은 용례가 그것이다. 《後漢書·儒林傳·張玄》에 “(徐業)與語, 大驚曰, ‘今日相遭, 盡解蒙矣’”라 한 것도 蒙昧함을 깨우쳐준다는 뜻으로 쓰인 예에 해당한다. ○吳崑은 “물건으로 머리를 가리워 쓰는 것을 ‘蒙’이라고 하니, ‘發蒙’이란 그 덮어 가리운 것을 제거함이다(以物冒首曰蒙. 發蒙者去其蒙蔽也)”라 했으니, 역시 같은 맥락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王冰이 말한 “어린이의 蒙昧한 귀를 열어 주는 것과 같이 疑惑된 者의 마음을 풀어줌에 하나 하나의 條理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 徵驗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言如發開童蒙之耳, 解于疑惑者之心, 令一一條理, 而目視手循, 驗之可得).”고 한 것에 있어서 ‘귀를 열어준다’고 한 것이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과 동작의 행위는 다르나, ‘蒙昧함을 깨우쳐준다’는 뜻에 있어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듯하다. ‘發蒙’은 곧 蒙昧함을 啓發해준이니, 별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解惑’은 疑惑됨을 풀어줌이다. 王注도 따를 만하다고 생각된다.

[懸雍]77) — 大奇論篇第四十八

○高世栻 이르길 “雍는 癰으로 적어야 한다. 虛腫의 癰은 위로 뜨고 근본은 크다.” 簡按 ①여러 註가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 ②대개 雍과 甕은 通한다. 《山海經》 “懸甕의 山에서 晉水가 뿜어 나온다”에 대한 郭璞의 註에 이르길, “山의 배(腹) 부분에 큰 암석이 있는데 마치 항아리(甕)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름한 것이다. 甕은 역시 瓮으로도 적는데, 《說文》에는 罍(양병, 병 양)이라 했고, 《廣雅》에는 瓶(병, 항아리 병)이라고 했다. 대개 그 배가 크고 입이 작은 것을 취하였으니, 가볍게 눌렀을 때는 작다가 깊이 만져 누름에

더욱 커지는 형상을 형용한 것이다. 《甲乙》에 雍을 癰으로 적은 것은 그르다(高云, 雍作癰, 虛腫之癰, 上浮本大也. 簡按, 諸註並不允. 蓋雍甕通, 山海經, 懸甕之山, 晉水出焉. 郭璞註云, 山腹有巨石, 如甕形, 因以爲名. 甕亦作瓮, 說文罍也, 廣雅瓶也. 蓋取其大腹小口, 而形容浮揣切之, 益大之象也. 甲乙雍作癰非).

析)雍—甕 : 항아리, 배불룩하다(雍은 甕과 통하며, 항아리, 배불룩하다는 뜻이다) → 脈象이 가볍게 눌렀을 때는 작다가 깊이 만져 누름에 더욱 커지는 형상을 나타냄

①이전 여러 註가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②雍과 甕은 通用하여 쓰며, 그에 대한 根據를 《山海經》 ‘懸甕之山’에서 찾고 있다. 郭璞의 註에 이르길 ‘항아리(甕)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름한 것’이라 했다. 그 배가 크고 입이 작은 것을 취하였으니, 가볍게 눌렀을 때는 작다가 깊이 만져 누름에 더욱 커지는 형상을 형용한 것이다. 《甲乙》에 雍을 癰으로 적은 것은 그르다 하고 있다.

字	半切	韻	紐	部
雍	《廣韻》於容切	平聲 鍾	影	東
甕	《廣韻》烏貢切	去聲 送	影	東

☞ ‘雍’은音が 《廣韻》 於容切, 平聲 鍾韻, 影紐, 東部에 속하고 ‘甕’은 《廣韻》 烏貢切, 去聲 送韻, 影紐, 東部에 속하니, 같은 紐 같은 部の 글자로 서로 通用한다. 《正字通·佳部》에 “雍은 甕과 통하여 쓴다”78)고 했다.

2) 形似字

形似字는 형태가 비슷한 글자를 빌어 쓰는 경우이다. 형태가 비슷함으로 인해 서로 통용

77) “脈至如懸雍, 懸雍者, 浮揣切之益大, 是十二俞之予不足也, 水凝而死.” — 《素問·大奇論篇第四十八》

78) 《正字通·佳部》 “雍 通作甕” — 《漢語大字典》, 湖北四川辭書出版社, 鄒華清 責任編輯, 1995

해 썼던 사례들이다.

[口糜] — 氣厥論篇第三十七

簡)糜(노루 균)은 여러 본에서糜(문드러질 미)로 적었다. 簡按) ①옛날에는 通用했다. <鹽鐵論>에 '糜鬲'이라 했고, <論衡>에 '糜爛'이라 했으니 모두糜와 같다. 그러나 宋本 以下에서는 모두糜로 적었다. 옹당 고쳐야 한다(古通用. <鹽鐵論>'糜鬲', <論衡>'糜爛', 並糜同. 然宋本以下, 並作糜, 當改) ②○張志聰 "小腸의 아래를 이름하여 關門이라 한다. 濟泌하고 汁을 나누어 膀胱으로 스며들고 膀胱은 도리어 小腸으로 熱을 옮긴다. 이 때문에 鬲腸이 아래로 滲出하지 못함에, 濕熱의 氣가 도리어 經을 따라 위로 거역한다. 그리하여 입이 그 때문에 헐어 문드러진다(志云, 小腸之下, 名曰關門, 濟泌別汁, 滲入膀胱, 膀胱反移熱於小腸, 是以鬲腸不能下滲, 濕熱之氣, 反隨經上逆, 而口爲之糜爛矣). ○<聖濟總錄>에 이르길 "熱氣가 厥逆하여 膀胱이 小腸으로 熱을 옮김에 胃의 水穀이 아래로 傳輸될 수 없으므로 鬲膜이 막혀 위를 不便하게하면 입에 瘡를 생하게 하고 헐어 문드러지게 한다. 대체로 心胃가 熱로 막히면 반드시 위로 薰蒸하게 되니, 대개 傳藥을 쓸 수 없다. 마땅히 그 根本을 구해서 치료해야 한다. 方이 一百十七卷에 갖추어져 있다(聖濟總錄云, 熱氣厥逆, 膀胱移熱於小腸, 胃之水穀, 不得傳輸於下, 故鬲塞不便上, 則令口生瘡, 而糜爛也. 大抵心胃壅熱, 則必薰蒸於上, 不可藥用傳藥, 當求其本而治之., 方具于一百十七卷)

析)①糜(노루 균)과糜(물크러질 미)는 옛날에 通用했음을 말하고 그에 대한 예증으로 <鹽鐵論>에 "糜鬲"이라 한 것과, <論衡>에 '糜爛'이라 한 것에서의 '糜'가 모두糜의 뜻으로 쓰인 것임을 들고 있다. 그러나 宋本 以下에서는 모두糜로 적었으니 옹당 고쳐야함을 말하고 있다. ②또한 口糜의糜는糜爛함이다. 志 註를 빌어 小腸 濕熱의 氣가 도리어 經을 따라 위로 거역하여 입을 헐게하는 것에 착안

하여 小腸의 關門이 口糜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련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아울러 口糜의 病機와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해 <聖濟總錄>의 말을 빌어 설명하여 <內經>이론을 실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는 그의 理論과 實質을 중시하는 實踐的 醫學精神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字	半切	韻	紐	部
糜	<廣韻> 居筠切	平聲 眞韻	見	諄
糜	<廣韻> 武悲切	平聲 脂韻	明	脂

☞糜는 音이 <廣韻>에 居筠切이고 平聲 眞韻 見紐 諄部에 속하고, 糜는 音이 <廣韻>에 武悲切이고 平聲 脂韻 明紐 脂部에 속하는데, 서로 간에 音에 의한 類似性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형태면에 있어서 糜과 糜는 사슴 鹿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下邊의 禾와 米가 뜻과 모양이 비슷하여 通用하여 쓰는 形似字가 아닌가 한다. 아마도 고대에는 糜자가 없었고, 糜자로 썼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 주는데, '糜鬲'과 '糜爛'의 용례가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宋이후에 글자가 세분화 되어 발전되면서 '문드러지다'라는 뜻으로 새로운 糜자가 등장함에 따라 糜자와 구분하여 모두糜로 적었으니 口糜로 고쳐 적어야 한다. '口糜'는 입안 혀에 瘡이 생겨 疳막이 헐어 문드러짐(糜爛)이다.

3) 기타(轉注)

[帝曰, 春亟治經絡] — 通評虛實論第二十八

簡) 張志聰과 高世栻은 모두 '帝曰'을 '岐伯曰'로 적어야 한다고 했다(志高並云, 帝曰當作岐伯曰).

簡按) ①윗 글 '帝曰, 形度' 以下 十六字에 대해 王冰은 이미 錯簡이라 했다. 張志聰과 高世栻은 '春亟' 以下는 윗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岐伯曰'로 고쳤으나 따를 수 없다. ②'亟'에 대해 王冰은 뜻이 급이고 音이

극(棘)이라고 했으며, 諸家들도 모두 같다. 이것은 아마도 틀린 것이 아닌가 한다. ③대개 《孟子·萬章下》 “巫問, “巫醜鼎肉(자주 문후를 묻고, 자주 익은 고기를 보내주었다)”에서의 ‘巫’은 음이 기(嗶)이고 頻數(자주)라는 뜻이다(簡按, 上文, 帝曰形度以下十六字, 王既謂錯簡也. 志高則以春巫以下爲上文答語, 故改岐伯曰, 不可從. 巫, 王訓急, 音棘, 諸家並同, 此恐非是. 盖孟子, 巫問巫醜鼎肉之巫, 音嗶, 頻數也).

析) ‘巫’은 원래 ‘빠르다(急)’의 뜻이었는데, 이것이 轉用되어 자주(數)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①王冰이 錯簡이라 한 것과 志·고가 ‘岐伯曰’로 고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② ‘巫’에 대해 王冰을 위시한 諸家들이 뜻을 급이라 하고 음이 극(棘)이라고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③ 《孟子·萬章下》 “巫問, “巫醜鼎肉”를 들어 ‘자주(數)’의 뜻으로 쓰인 用例를 들고 있다.

愚按) ‘巫’은 《說文》에 “敏疾也”라 했다. 본래의 뜻은 ‘빠르다, 급하다’이고 음은 ‘극’(《廣韻》에 紀力切, 棘)이다. ‘빠르고 급하다’는 뜻에서 빠르고 급하다보니 자주하게 되었고, 이것이 다시 마침내 ‘자주’라는 뜻으로도 轉用되어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 뜻이 변함에 따라 음도 따라 ‘기’(《廣韻》去支切, 嗶)라는 음으로 변하게 된다. ‘빠르다, 급하다’는 뜻에서 그 뜻이 ‘자주’라는 뜻으로 轉用되어 쓰였으니 漢字의 制字生成原理인 六書 중 轉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주’ 數(삭)이라는 글자와 互訓을 이루게 된다. 여기 ‘巫治’에서의 ‘巫’은 부사적으로 쓰인 글자이니 ‘자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상은 元簡이 通假字 및 轉注를 이용해 풀이한 것 중의 몇 몇 사례를 뽑아 그것이 古音 分類基準인 聲紐와 韻部에 들어맞는 지의 여부를 일일이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元簡이 通假한 字들은 모두 同音과 雙聲疊韻을 이루어 이들이 모두 聲音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음을

을 보았다. 이밖에도 그는 古通用의 사례를 들어 《內經·素問》을 풀이해 나가고 있는데, 다음은 《素問識》 전체에 걸쳐 通假字를 運用하여 풀이한 事例를 정리한 것이다.

<通假字運用事例>

III. 結 論

元簡은 儒學을 바탕으로 한 醫學家門의 子弟로 태어나, 經史子集등 古籍을 博覽하고, 小學을 익혀 訓詁學에 대한 튼튼한 基礎를 마련하였다. 그는 難解한 古書를 읽는 데에 있어서 먼저 訓詁學的인 知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明清 여러 注家들이 訓詁를 무시하고 “句外添意, 鑿空臆測”, “望文生義”하는 폐단에 빠지는 것에 대한 代案으로 訓詁를 주장했다. 또한 元簡은 醫理와 訓詁를 결합하여 調和로운 發展을 도모해 나갔다.

1. 丹波元簡의 學問的 性向

1) 明清 考證學의 接木 및 古方派와 後方派의 折衷 : 그의 學統은 明清 考證學의 영향 아래 訓詁考據學派의 主將이 되었으니, 明·清代 訓詁學家인 楊慎을 위시하여 方以智· 顧炎武의 學을 받아들여 익혔다. 이어서 그의 아들 元堅은 戴震의 제자들인 段玉裁· 阮元· 王引之의 學을 받아 들었다. 이들은 明清 考證學의 學脈을 繼承하였으며, 이를 더욱 發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李·朱 醫學을 추종하는 後世派를 취하되, 李·朱 醫學이 지나치게 空理空論으로 흐르는 폐단을 극복하고자 古方派의 實證의인 면도 함께 취하는 折衷派의 입장에 서서 均衡잡힌 學問의 성취를 모색해 나갔다.

2) ‘溫故知新’의 實踐 — 醫學經典의 道를 밝히는 ‘復古’에 힘씀 : 그는 醫學經典의 道를

<通假字運用事例>

	原文	通假字		訓	篇名
		假字	本字		
1	皆度百歲	度	渡	越也, 過也	上古天真第一
2	頰白	頰	斑	일록지다	上古天真第一
3	以耗散其眞	耗	好	嗜好, 欲(좋아함, 욕심.)	上古天真第一
4	被髮	被	披	헤치다, 펼치다	四氣調神第二
5	辟積	辟	襞	裙褶, 쌓임, 중복됨	生氣通天第三
6	心氣[喘滿]	滿	懣	悶	生氣通天第三
	煩滿而囊縮				熱論篇第三十一
7	[俞]在頸項	俞	輸, 膂	轉輸, 經穴, 水道, 窩	金匱眞言第四
8	能冬不能夏	能	耐	견디다	陰陽應象第五
9	身常清	清	清	寒, 차갑다	陰陽應象第五
10	[爲痺]于註 痺 痺	痺	頑	痺, 手足麻痺	五藏生成篇第十
11	支鬲肢脅	支	持	支撐, 버티다.	五藏生成篇第十
12	鬼門	鬼	氣	氣	湯液醪醴第十四
13	必以[布敷]著之	敷	巾敷, 綴	脛行膝, 脛布, 綴脚布, 裹脚布, 行膝	診要經終 第十六
14	溼理	溼	膜	月+聚, 人體중 元眞이 모여 있는 곳	生氣通天論第三
15	有病[彪然]	彪	龐, 彪	大, 浮起, 부어오름	奇病論第四十七

16	狗蒙招尤	狗	徇, 胸	眩, 아찔하다 不定, 暈, 흔들다	五藏生成篇第十
		尤	搖		
17	胃疸	疸	瘧	消中. 後世所稱中消渴也	平人氣象第十八
18	中手渾渾然者	渾	混	般雜(효잡 : 뒤섞임)	三部九候 第二十
19	痿	痿	委, 萎	萎弱無力, 痿·痺·癱同類,	痿論篇第四十四
20	脅支滿	支	拄	받치다, 거부하다	藏氣法時第二十二
21	郟中	郟	隙	古法以委中爲郟中也	藏氣法時第二十二
22	伏如橫弩	橫	橫	弩滿, 쇠뇌를 가득당김	寶命全形二十五
23	隴起	隴	壘	북돋아오른다(擁起)	離合眞邪第二十七
24	彈而怒之	怒	努	굳세다, 힘차다	離合眞邪第二十七
25	抓而下之	抓	爪	손톱으로 꼬집다	離合眞邪第二十七
26	蹠破	蹠	跣, 足炙	발바닥, 다리	通評虛實第二十八
27	暑當[與汗]皆出	與	子	주다	熱論篇第三十一
28	循膂而下	膂	呂	脊骨 또는 脊肉	瘧論篇第三十五
29	瘧癘	瘧	瘧	熱, 熱甚	瘧論篇第三十五
30	癰腫少氣	癰	壅	막다	氣厥論第三十七
31	爲[慮癘]爲沈	慮	宓·伏	숨다	氣厥論第三十七
32	炅	炅	炯=炯	熱, 炎蒸	舉痛論三十九
33	蘆茹	蘆	蘆, 蒹	改作茹蘆, 蘆蘆蒹一音古通用	腹中論篇第四十
34	口糜	糜	糜	문드러지다	氣厥論第三十七
35	害蜚	害	盍, 闔	門扇 문짝. 害蜚는 闔扉이니 문짝이다	皮膚論第五十六
		蜚	扉		
36	樞持	持	杼	軸	皮膚論第五十六
37	樞嚮	嚮	樞, 槓	樞上 柱頭的 槓(두공)	皮膚論第五十六
38	害肩	害	盍, 闔	門扇 桁(가로보), 闔扉 위의 樞를 받아들이는 桁	皮膚論第五十六
		肩	木肩		
39	關蟄	蟄	榮	闔(문지방), 門中の 左右의 門이 合해지는 곳	皮膚論第五十六

밝히는 ‘復古’에 힘쓰는 가운데 復古를 위한 方便으로 誥訓을 연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內經》研究에 있어서 訓詁學的 기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옛날로 돌아가 古醫學 經典인 《內經》과 《傷寒論》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道를 밝혀내고자 하는 데에 힘썼다. 한편 以前의 것 중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슴없이 틀린 것을 지적해 내었으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때에는 자신만의 見解를 제시했다. 그는 옛것을 바탕으로 復古에 충실하는 가운데 자신의 主觀을 가지고 獨創의 理論을 세워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힘썼다. 겉으로는 復古를 외쳤으나 그의 精神裏面에는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겠다는 溫故知新 精神을 몸으로 實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3) 實事求是에 힘쓰는 — 醫理와 臨床을 결합한 現實的 實證主義 醫學家 : 그는 또한 清代 朴學의 영향을 받아 空理主義의 폐단을 배격하고 理論보다는 實踐을 중시하는 實事求是를 지향하였으니, 現實을 바탕으로 한 實證主義的 醫學家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素問識》 全篇에 걸쳐 《內經》에 나오는 理論이나 病證에 대해 그와 관련된 醫論이나 處方을 소개하여 실제 臨床에 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힘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內經》과 仲景의 書를 참고 대조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發明하는 뜻을 보여주려 노력했던 것이다. 이는 《內經》의 理論과 病證에 대해, 실제 臨床과의 連結고리를 탐색해 보려는 試圖의 하나일 것이다. 理論과 臨床의 調和를 중시한 現實的 實踐 醫學家이었다. 《素問識》는 바로 實事求是의 樸學으로부터 影響을 받은 實證主義的 思考의 產物인 것이다.

2. 《素問識》에 나타난 訓詁學的方法論

1) 폭넓은 讀書과 방대한 基礎資料 具備 : 그는 우선 訓詁를 하기 위한 準備作業으로 폭넓은 讀書과 방대한 基礎資料를 具備하고 있었으니, 이는 올바른 訓詁가 되기 위한 必須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素問識》를 편찬할 당시에 以前의 여러 《內經》 板本과 註釋本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參考用書로서 《古今圖書集成》이 이미 日本에 전해져 資料集으로 확보되고 있었으니, 이것이 考證 資料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2) 取長捨短 → 自成一家之言 : 광범하게 各家의 說을 匯集하고, 자기가 터득한 醫理와 臨床實踐을 통한 醫學的 經驗과, 訓詁學的 知識을 결합하여 取長捨短하는 가운데 스스로 一家의 말을 이루었다. 특히 그가 참고 인용한 注는 王冰의 《次注素問》를 바탕으로 삼은 가운데 馬蒔·吳崑·張介賓 등 明清 諸家의 註를 총망라하였으니 십여 가지가 된다. 이들을 인용하면서 長點은 취하고 短點은 버려 자신의 독특한 學問의 성과를 구축하였으니, 《內經》 연구에 있어서 이전의 것을 集大成하여 새로운 장을 열었다.

3) 通假字 활용 : 元簡은 “옛날에는 假借로 通用하는 것이 頗多했다”라고 했다. 元簡은 《素問識》 전편에 걸쳐 難解한 《內經》 글귀에 대해 通假字를 이용하여 명쾌한 풀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는 訓詁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假借의 용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에 대해 該博한 知識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素問에 대한 考證을 치밀하게 진행해 나간다.

4) 철저한 考證作業 시행 — 言必有據 : 그는 考證作業을 철저하게 진행해 나갔으니, 말의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거가 있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以經解經. 그는 經典의 原文을 근거로 한 풀이를 우선으로 하였다. 이 방법은 《內經》 전체의 내용을 熟知하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作業 중의 하나이다. 元簡은 《素問識

》 여러 곳에 걸쳐 관련된 《內經》 原文을 이용하여 풀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內經》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분석적으로 內容을 整理하고 꿰뚫어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醫理와 訓詁의 結合 :

가) 醫理를 바탕으로 한 訓詁 — 醫書類를 活用 : 그가 活用한 醫書는 《傷寒論》, 《金匱要略》, 《諸病源候論》, 《千金方》, 《難經》, 《聖濟總錄》, 《張氏醫通》, 《外臺秘要方》, 《本草綱目》, 《醫學綱目》, 《本草經》 등 총 140여 種에 달하며, 이들 醫書의 內容을 《內經》에 結合시킴으로써 《內經》을 실제 臨床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醫學이 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그의 醫學에 대한 實踐의 자세를 나타내주는 內容이라 할 수 있다.

나) 訓詁를 바탕으로 한 글자풀이 : 元簡은 글자를 풀이함에 있어서 전문 訓詁 工具書를 活用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글자풀이의 專門書인 字典類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전 先秦 經史 諸子百家들의 註釋을 글자풀이의 工具로 사용하고 있다.

① 字典類 : 그는 30여 種에 해당하는 字典類의 工具書를 活用하여 글자를 풀이하고 있다. 字形書로는 《說文》, 《玉篇》이 있고, 字音書로는 《熊音》, 《廣韻》, 《集韻》, 《釋音》, 《韻會》, 《音釋》 등이고, 字義書로는 《釋名》, 《爾雅》, 《廣雅》, 《通雅》가 , 《字彙》 등이 이용 되었다. 이들은 모두 古代 典籍을 訓詁하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必須 工具書들이다.

② 註釋書 : 古註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訓詁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 註釋書는 비록 專門的으로 訓詁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매우 풍부한 訓詁資料들이 담겨있으니, 古代의 訓詁들은 古註중에서 歸納해 낸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元簡은 孔子傳, 孔安國傳, 徐鍇註, 鄭玄註, 高誘註, 郭璞註, 孔穎達疏, 成無己註, 孫愐註, 安師古註,

裴駟註, 張守節註 등 60여 種의 註釋書를 이용하여 글자 풀이를 진행해 나갔다.

(3) 《內經》과 同時代의 經史諸子百家書에서 《內經》 字句와 같은 用例로 쓰인 것들 들어 傍證을 취하였다. 訓詁學의 핵심은 한마디로 글자를 풀이하는 것이니, 같은 用例로 쓰여진 글자를 찾아내는 일이 주 임무이다. 傍證을 취함에 있어서는 두 개 이상의 用例를 들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信賴感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가 사용한 傍證書는 다음과 같다. 《禮記》, 《尚書》, 《周禮》, 《周易》, 《儀禮》, 《曲禮》, 《禮記月令正義》, 《大戴禮》, 《論語》, 《孟子》, 《孔子家語》 등에 걸친 儒學經典과 《史記》, 《漢書》, 《左傳》, 《前漢書》, 《春秋繁露》, 《後漢書》, 《國語》, 《穀梁傳》 등 歷史書와 《莊子》, 《淮南子》, 《荀子》, 《老子》, 《子華子》, 《列子》, 《管子》, 《關尹子》, 《韓非子》 등 諸子百家書와 《白虎通》, 《文選》, 《山海經》, 《論衡》, 《呂覽》, 《七發》, 《經典釋文》, 《漢詩外傳》, 《敬齋古今注》, 《說苑》, 《急就章》, 《楚辭》, 《蘇頌圖經》, 《新書》, 《顏氏家訓》, 《易緯通卦驗》, 《全國策》, 《五行大義》 등 經史·諸子百家書를 망라하고 있다.

元簡은 出典의 모든 根據를 일일이 책을 읽고 뒤져가면서 찾아내는 수고를 덜기위해 1차 기초 검색자료로 《康熙字典》과 같은 綜合物類書에 해당하는 字典類를 工具書로 사용하였다.

3. 訓詁學의 成果

그가 通假字를 이용해 풀이한 것 중의 몇몇 사례를 뽑아 그것이 古音 分類基準인 聲紐와 韻部에 들어맞는 지의 여부를 일일이 검증해 본 결과 元簡이 通假한 字들은 모두 同音이거나 雙聲疊韻을 이루어 이들이 모두 聲音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었다. 또한 이는 《內經

을 理解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便利하고 正確함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元簡은 이전의 注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古通用'의 事例를 찾아내었으니, 經文의 글자 用例와 같은 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데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또한 이것은 通假字를 사용함에 있어서 音의 관계가 同音 또는 類似音이라고 해서 아무것이나 임의로 通用해서 쓸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訓詁學의 通假字를 활용하여 《素問》의 醫學 專門用語 및 難解한 글귀를 해독하는 데에 큰 成果를 이루었다.

IV. 參考文獻

1. 丹波元簡, 《素問識》, 聿修堂醫書選, 人民衛生出版社, 1984
2. 丹波元簡, 《靈樞識》, 聿修堂醫書選,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皇漢醫學叢書》全 13卷, 대만, 世界書局, 1984
4. 陳存仁 編校, 《皇漢醫學叢書》全 13卷 중 (一), 《素問識》,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5. 《四部叢刊》初編, 上海商務印書館再版影印本, 1922
6. 《四部叢刊》續編, 上海商務印書館再版影印本, 1932
7. 《四部叢刊》三編, 上海商務印書館再版影印本, 1936
8. 《四部叢刊》, 上海涵分樓藏本, 電子版, 上海涵分樓藏本, 北京書同文數字化技術有限, 2001
9.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上海涵分樓藏本, 電子版, 人民衛生出版社,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10. 《重廣補註 黃帝內經素問》, 明嘉靖顧從德重雕版本, 國立中國醫藥研究所出版, 1960
11.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康熙16, 1677 丁巳
12. 劉之謙, 王慶文, 傅國志 等 編著,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中醫古籍出版社, 1988
13. Pierre Huard, Ming Wong 著 許程譯, 《東洋醫學史(CHINESE MEDICINE)》,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3
14. 오쓰카야스오(大塚恭男), 《日本の 東洋醫學》, 小花출판사, 이광준역, 한림대학교 한림원, 일본학연연구소, 한림신서일본학총서 53, 2000, TOYOIGAKU, by Yasuo Otsuka Originally published in Japanese, by Iwanami Shoten, Publishers, Tokyo, in 1996
15. 錢超塵, 《中醫古籍訓詁研究》, 貴州人民出版社, 1984
16.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人民衛生出版社, 1998
17.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8. 張燦理, 《中醫古籍文獻學》, 人民衛生出版社, 1998
19.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上·中·下, 北京出版社, 1994
20. 《漢語大字典》, 湖北四川辭書出版社, 鄒華清 責任編輯, 1995
21. 阮元, 《經籍纂詁》, 中華書局, 1981
22.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中華書局, 1982
23. 李錦波, 《日本漢醫學 變遷史에 관한 研究》, 慶熙大博士論文, 1982
24. 胡天雄, 《素問補識》, 中國醫學科學出版社, 1991
25. 陳竹友, 《簡明中醫訓詁學》, 人民衛生出版社, 1997
26. 朴贊國·尹暢烈編著, 《醫學漢文》, 成輔社, 2002
27. 董治國, 《古代漢語句形大典》, 天地古籍出版社, 1982
28. 易孟順, 《先秦語法》, 湖南教育出版社, 1989

29. 張學賢, 《古漢語語法比較》,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1
30. 潘重規·陳紹棠, 《中國聲韻學》, 東大圖書公司, 1981
31. 林尹, 《文字學概說》, 正中書局, 1971
32. 王引之, 《經傳釋詞》, 岳麓書社, 1982
33. 《素問釋義》, 黃帝內經研究叢書5-6, オリエント出版社, 1987
34. 《素問研》, 黃帝內經研究叢書5, オリエント出版社, 1987
35. 《素問次注集疏》, 黃帝內經研究叢書2-4, オリエント出版社, 1987
36. 丸山敏秋, 《黃帝內經と中國古代醫學》, 東京美術, 1988
37. 矢數道明)原著, 裴元植監修, 《漢方治療百話》1-6, 東南出版社, 2000
38. 矢數道明, 《近世漢方醫學史》, 名著出版, 1982
39. 富士川遊(후지가와유), 《日本醫學史》, 東京, 日新書院, 1942
40. 淺田惟常(宗伯), 《皇國名醫傳》, 《皇漢醫學叢書》, 上海人民衛生出版社, 1993
41. 《康熙字典》, 中華書局, 1987
42. 段玉裁, 《說文解字註》, 大星文化社, 1990
43. 程士德主編, 《素問注釋滙粹》, 人民衛生出版社, 1982
44. 梁運通主編, 《黃帝內經類釋》,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